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3372호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경제·금융]
돌아온
이순우의
각오
09

Economy

코스피 1964.06 (-26.59)
코스닥 652.05 (-4.48)
금리(국고채 3년) 1.66 (-0.01)
환율(원·달러) 1165.40 (-5.10) 〈28일〉

"DNA바꿔 '금융의 삼성'될 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회장, 글로벌 IB 도약

"기업은 투자를 먹고사는 생물과 같아"
투자 문화 활성화 위해 '대우증권 합병'
경제 역동성 회복 초점… 금융리더 첫발

미래에셋증권 박현주 회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번째 승부수를 던졌다.

미래에셋캐피탈에서 번 돈으로 박 회장이 세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듬해인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증권시장이 침몰했던 시기에 국내 최초의 뮤추얼펀드인 '박현주 1호'를 출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으며 세계적인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2005년에는 SK생명(현 미래에셋생명)을 인수, 미래에셋을 증권과 자산운용, 보험사를 갖춘 투자전문그룹으로 키워냈다. 그런 그가 이번엔 대우증권을 인수,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꿈꾸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의 합병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DNA를 바꿔보고 싶다."

◆ 박현주 회장의 세번째 승부수

박 회장은 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에셋의 (합병) 결정은 다년간 쌓은 내실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영을 이루고 한국 경제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절실함에서 나온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투자를 먹고 사는 생물과 같다"며 "투자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한국은 투자가 왕성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투자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으로 저성장 고령화, 내수 부진, 수출 등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사례 등 혁신 성장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모험자본에 의해 발전해 왔다"며 "미래에셋이 쌓아온 투자 전문가로서의 노하우와 대우증권의 IB(투자은행) 역량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투자금융의 토양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한 업계 1위의 자산운용사와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의 시너지는 1 플러스 1이 아니라 3, 4, 5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라며 "업그레이드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단순히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강하고 더 신뢰받을 수 있는 미래에셋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장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천천히 도태될 것이 자명하다"며 "미래에셋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영원한 이노베이터(혁신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 같은 금융사를 만드려면 리더그룹이 불가능한 상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이병철, 정주영 이런 선대들은 불가능한 꿈을 꿨기에 오늘의 삼성, 현대가 있을 수 있었다 "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통합법인 사명으로 '미래에셋대우증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증권 인수를 계기로 미래에셋그룹의 자본금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게 된 것에 대해 박 회장은 "금융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아직도 갈증은 있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시장에서 걱정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대우증권 직원들은 모두 저희 (업계) 후배들이고 한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우증권과 함께 인수하게 될 산은자산운용에 대해 박 회장은 "헤지펀드를 상당히 강화해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 공급 회사로 만드려고 한다"며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해 다른 회사가 하나 만들어질 것"이라고 청사진을 그렸다.

이 밖에 미래에셋그룹을 금융지주사 체제로 재편할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 박 회장은 "지주사를 만들면 관리하기는 좋지만 야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며 "미래에셋그룹은 장기적으로 느슨한 연대가 좋겠다"고 답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청와대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舊怨 털고 다시 동반자로

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
日 10억엔 거출 등 합의

日정부 착실한 이행 전제로
국제사회서 상호비난 자제

한국과 일본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 거출 등 3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아베 일본 총리는 기시다 외무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에 상처를 준 문제"라며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관련 예산을 10억 엔(약 96억원)으로 상정했다. 구체적 예산은 향후 조정된다.

한국 정부는 윤 장관을 통해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하는 것을 기초로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하는 조치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선 "공관의 안녕과 위엄 유지 관점에서 (일본 측이) 우려하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이후 유엔(UN)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청와대를 방문한 기시다 외무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신속히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협상결과 성실이행으로 한일관계 새출발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위안부 타결에 미국 있었다"

아시아재균형 정책 우려해

28일 한일 양국 간 역사적인 위안부 문제 타결에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왔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위안부 문제로 동맹국인 한일 간 갈등이 지속되자 아시아재균형 정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왔다. 경계 대상인 중국이 위안부 문제를 고리로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노렸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협상 타결 직후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양국의 관계개선이 본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일본은 아시아 인민들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죄행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고, 침략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철저한 실적주의… 사장급 승진 全無

현대차그룹 정기 인사

승진폭 전년比 15% 감소
연구개발·기술부문 우대
글로벌 겨냥 해외인재 영입
시장 선점·신기술 확보 등
핵심 경쟁력 강화 노림수

현대자동차그룹이 28일 현대·기아차 191명, 계열사 177명 등 총 368명 규모의 2016년도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직급별 승진자는 ▲부사장 8명 ▲전무 29명 ▲상무 81명 ▲이사 115명 ▲이사대우 13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3명이다. 그러나 사장급 승진자는 전무했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인사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고 실적 위주의 인사 원칙을 철저히 반영해 전년도 433명 대비 15% 감소한 규모로 이뤄졌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연구개발·기술부문을 우대한 것이 특징이다. 〈관련기사 5면〉

현대차는 지난 11월 선보인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2명의 해외 전문가를 영입했다.

우선 벤틀리 전 수석 디자이너 출신의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를 현대디자인센터장에 임명했다. 루크 동커볼케 전무는 '올해의 유럽 디자인상' 등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을 15회 수상한 스타 디자이너다. 피터 슈라이어 현대·기아차 디자인 총괄 사장과 제네시스, 현대차 브랜드를 위한 디자인 개발에 나선다.

람보르기니 브랜드 총괄 임원 출신의 맨프레드 피츠제럴드도 제네시스전략담당에 임명되며 현대차에 합류했다.

맨프레드 피츠제럴드 전무는 마케팅전략과 이벤트, 광고, 우수 딜러망 발굴 등을 주도하며 람보르기니 브랜드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향후 제네시스 브랜드가 국내외 고급차 시장에서 혁신의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정기 임원인사에서 승진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연구개발과 기술부문이다. 전체 대상자 중 42.9%(158명)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차량 성능과 품질 개선, 친환경 차량, 차량IT 등 미래 기술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현대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수석연구위원 1명과 연구위원 3명을 새로 선임해 핵심기술 분야의 전문 역량 강화를 꾀했다.

연구위원은 관리업무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박종술 연구위원이 수석연구위원으로 승진했다. 역대 최연소로 장영실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박 위원은 친환경차 전용변속기, 듀얼클러치변속기(DCT) 등을 개발해 변속기 분야에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임 연구위원에는 자동변속기 분야 전병욱 위원, 차량IT 분야 백순권 위원, 공조 분야 오만주 위원이 선임됐다.

연차와 관계없이 높은 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본 승진 인사도 있다. 현대캐피탈 디지털 신사업실장 이주연 이사대우는 이사로 승진했고, 현대자동차 IT기획실장 안현주 부장은 이사대우로 승진 발령했다.

특히 IT분야 전문성과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임원에 오른 안현주 이사대우는 공채 출신 첫 여성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신규 임원인 이사대우, 연구위원 134명 가운데 23.9%인 32명이 연차와 관계없이 성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승진했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시장 선점과 판매 확대, 미래 신기술 우위 확보, 품질·브랜드 향상 등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라며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어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세계 초일류 자동차 업체로 도약하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한줄 News

정치·사회·국제

▲ 한국과 일본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거출 등 3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 **경찰청**은 28일 본청 대변인에 김규현 대전청 1부장을 내정하는 등 '경찰의 별'인 경무관 5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 **일본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 씨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산업

▲ **현대자동차그룹**이 총 368명에 이르는 임원 승진 인사를 28일 단행했다. 현대차그룹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내실경영을 유지하면서 실적 위주의 인사 원칙을 보다 철저히 반영해 작년보다 15.0% 감소한 규모로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6'에서 신개념 가전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금융·부동산

▲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1년 만에 저축은행중앙회 신임 회장으로 금융권에 돌아왔다. '정통 은행맨' 출신인 이 회장은 금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이미지 개선에 강점을 발휘할 전망이다.

▲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말 '부동산 3법' 통과와 함께 시작돼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이 맞물리면서 호황을 맞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재건축·재개발 호황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유통

▲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해외 매장 200호점 '링윈광창점'을 중국 상하이에 개점했다. SPC그룹은 200호점 오픈을 계기로 해외가맹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문 닫는 국회… 결국 해 넘기는 경제·노동법안

합의해도 숙려기간 5일 남아
여야, 무쟁점 안만 우선 처리

여야 의원들이 지난 2일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경제·노동법안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극적합의를 이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간의 법안 숙려 기간을 고집할 경우 해를 넘기게 되는 데다, 연내 처리의 유일한 방법인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쟁점 법안 격론으로 '무쟁점 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자 여야는 일단 28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46개 법안과 추가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임시국회가 무성과로 끝나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여야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경제활성화 관련 2개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경제민주화 관련 2개 법안(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함께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빈손 임시국회'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주고받는 극적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제시한 대안을 놓고도 이견차가 여전해 분리 처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생산 국회, 정치력 실종 국회, 빈손 국회의 모습에 국민이 정치권을 질타하고 있는데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게 을미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수는 선거구획정과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직권상정 연계 처리다. 앞서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이달 31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직권 상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구 미확정으로 내달 1일 기존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고 후보자의 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비상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 상정 처리될 경우 노동 5법은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면서 여야 간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까닭에 청와대는 선거구획정과 노동 5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도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고집해온 정 의장이 며칠 사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31일 본회의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9개 쟁점 법안 동시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8일까지 협상력을 가동, 최소한 밀어붙이기식 통과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사실상 총선 체제에 돌입, 각 당 내부 공천룰 싸움까지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이달 말일을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두 달 간 이견을 보인 법안들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미란 기자 actor@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에 15년 간 7조원 투자한다

산업부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양·산청·합천 등 16개 지역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 건설에 약 7조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까지의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공급 계획 등을 담은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공고했다.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는 연평균 2.06%씩 증가하고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연평균 4.17%씩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일반용과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증가와 2020년 이후 대거 완공되는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의 영향이다.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19년까지 도시가스 보급 지자체 수를 현재보다 16곳 많은 216곳으로 늘린다. 공급 인프라 건설에는 7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군(郡) 단위 12곳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배관망' 방식으로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20만㎘급 저장탱크 10기 규모의 대형 저장시설 건설도 추진된다.

정부는 천연가스 고입선과 도입가격 결정 방식도 다변화하고 2~3년 단위 장기계약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수입되는 천연가스 전량이 도착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도착지 제한 조항이 없는 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50%까지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도착지 제한 조항을 풀면 남는 물량을 다른 곳으로 분산해서 하역할 수 있어 재고비용이 줄어든다"며 "다른 나라로 수익을 붙여 재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2017년부터 미국 '사빈 패스 LNG터미널'에서 들여오는 연간 280만t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에 도착지 제한 조항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오세성기자 sesung@

中의 反테러법, 美 IT기업 겨누나

사적 정보·사업 기밀 등 요구
애플 등 中 진출社 발등에 불

지난 27일 중무장한 중국 공안요원들이 베이징의 번화가에서 경계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을 심의 통과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IT기업의 정보 제공 의무를 담은 반테러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애플, 시스코, IBM 등 글로벌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8일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법안 내용 중 글로벌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제18조다. 이 조항은 IT업체들로 하여금 암호화 키를 비롯해 공안당국이 테러 수사를 위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기술적 지원과 협조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초안에는 IT기업들이 암호화 키와 다른 민감한 자료까지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미국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조항을 수정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표현이 순화됐을 뿐 여전히 IT기업들은 중국 공안이나 보안당국이 요구하면 암호화 키를 비롯한 기술정보들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이 같은 정보들을 확보하게 되면 이른바 '뒷문'(해킹에 취약한 부분)를 통해 사용자들을 감시할 수 있어 사적 정보는 물론이고 사업기밀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측이 법안을 반대하는 논리다.

암호화는 온라인 거래 등에 널리 쓰이는 기술이다. 중국에 진출한 대표적 IT기업인 애플이 경우 아이폰 iOS 운영체제에 내장된 암호화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제 3자가 해독 불가능한 암호로 변환시킨다. 애플은 이용자의 통신 내용이 암호화 기술로 철저히 보호돼 자사가 확인할 수 없으며 감청 요구에 응하고 싶어도 응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일단 뒷문이 만들어지면 어떤 식으로든 악용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중국 측은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며 일축하고 있다. 리서우웨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형법실 부주임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국에 협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뒷문을 통해 기업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역으로 미국 측이 반테러활동과 관련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격하고 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가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에게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애플은 암호화 기술을 놓고 미국 수사당국과 영국 정부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는 아직 암호화 기술 등과 관련한 움직임이 없지만 수사당국은 애플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인 사이러스 밴스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아이폰은 합법적인 영장이 미치지 않는 미국 최초의 상품"이라면서 "(아이폰 때문에) 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이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도 지난달 파리 테러 이후 암호화된 스마트폰 데이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영국 정부는 범죄와 테러 예방을 위해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애플과 같은 IT 기업에게 암호화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지난 21일 8페이지 분량의 반박 문서를 영국 의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애플은 범죄자나 해커로부터 고객 정보를 확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법안대로 할 경우 당국이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뒷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의 미국 주도의 인터넷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어 IT기업의 암호화 기술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에서 반테러법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22일 미국 국무부는 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중국은 "이유없는 비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자산관리+IB역량… 꾜 대표 투자은행 발돋움

〈미래에셋〉 〈대우증권〉

대우 품은 미래에셋 〈上〉 글로벌IB, 닻 올렸다

합병으로 자본 7조9000억원 초대형 증권사되
각 사의 강점·노하우 결합으로 해외 진출 박차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의 본질적 가치는 혁신과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새로운 도전은 '2020년 자기자본 10조원, 아시아 1위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요약된다.

그는 "미래에셋이 쌓아온 투자전문가로서의 노하우와 KDB대우증권의 IB역량을 결합해 세계 각지의 우량한 투자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 금융의 토양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샐러리맨의 신화로 통하는 박현주 회장이 꿈꾸는 '한국판 골드만삭스'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글로벌 IB 도약 발판 마련

"신년사에서 3년 안에 자기자본 10조원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 인수합병(M&A)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대우증권은 우리와 합쳐 1+1을 3으로 만드는 회사다. 이 같은 생각에서 대우증권은 '상당히 지불해도 되는 회사'였다."

박 회장에게 지난 1년여 기간은 말 못할 고통의 시간 이었다. 바로 대우증권 인수 문제다.

그는 "신년사는 직접 쓴다"며 "1년이면 너무 빨라서 3년으로 얘기했지만, 그 신년사에는 대우증권 M&A 복안이 머리속에 있었다"며 '말' 못하는 고통을 토로했다.

일찌감치 대우증권 인수를 염두에 두고 글로벌 IB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글로벌 무대에서 어느정도 노하우도 쌓았다.

미래에셋은 상하이 푸둥 미래에셋타워에 지난 2006년 2600억원을 투자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 푸둥 미래에셋타워의 현재 평가금액만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2011년 골프용품 세계 1위인 아쿠쉬네트(타이틀리스트 지주회사) 인수를 통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톱브랜드를 인수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증권 본사. /연합뉴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대우증권 인수는 글로벌 IB로 본격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쳐지면 자기자본 7조9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증권사가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월 단행한 유상증자를 마치면 자기자본 3조5000억원이 된다. 이것만으로도 업계 3위로 올라서는데, 대우증권(4조4000억원)을 합치면 7조9000억원으로 덩치가 커진다.

◆ 박회장이 그리는 그림은

미래에셋이 그리는 그림은 균형있는 이익 구조다.

자산 운용이 강점인 미래에셋과 위탁매매 및 IB부문 강자인 KDB대우증권이 합치면 그 파괴력은 기대 이상일 것으로 시장에선 평가한다. 또 미래에셋의 글로벌 입지도 강화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 6월 말 기준 2조4476억원으로 최대 9561억원(발행가 2만1750원) 증자에 성공하면 자기자본 규모가 3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삼성증권(3조5705억 원), 한국투자증권(3조2580억원), 현대증권(3조2100억 원)을 넘어 자기자본 기준 증권업계 4위로 부상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대형화를 위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에 대해 기업신용공여와 헤지펀드 프라임브로커 자격을 주고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자산관리·해외투자에 강한 미래에셋증권과 투자은행(IB)·리테일 부문에 강점이 있는 대우증권이 합쳐지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였던 제일모직(현 삼성물산) 상장을 단독으로 대표 주관한데 이어 올해는 호텔롯데의 대표 주관을 맡는 등 IB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해 왔다.

국내 102곳의 점포를 기반으로 한 브로커리지(위탁매매)와 고객 컨설팅에 능한 면모도 대우증권의 강점 중 하나로 꼽힌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같은 대우증권의 강점을 자사의 노하우와 결합해 아시아 대표 IB로 발돋움한다는 꿈을 품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그룹은 2003년 국내 최초의 해외 운용법인인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출범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만큼 향후 해외 법인 실적 1위인 대우증권의 네트워크를 융합해 해외 진출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실리콘밸리 등 혁신성장 산업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모험자본에 의해 발전해 왔다"며 "투자전문가로서의 노하우와 대우증권의 투자은행(IB)역량을 결합해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박현주 일문일답

"꿈을 꿔야 불가능도 현실이 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한국 증권산업은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 상상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래야 한국 금융에도 삼성과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투자가 왕성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회장은 "실리콘밸리 등 혁신성장 산업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모험자본에 의해 발전해 왔다"며 "투자전문가로서의 노하우와 대우증권의 투자은행(IB)역량을 결합해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조 반발… 구조조정 계획 없는가.

"210조 예탁자산에 자기자본이 8조다. 70조와 210조는 차이가 있다. 한국 자본시장은 은행업 밑에 있으면서 길들여진게 많다. 자산규모로 보면 300개 가도 된다. 또 기업의 사회적 가치로 봤을 때 대우증권이, 대우증권 직원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다. 직원들에게 상처줄 수 없다. 내가 이 업계에서 자란 사람인데 기회를 많이 줄 것이다. 같이 갈 생각이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구조조정에 대한 염려가 많았으면 M&A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우증권 인수 계획 언제부터.

▲작년에 금융위에서 올해 대우증권을 매각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신년사에서 미래에셋그룹의 자기자본을 3년내 10조원으로 만들겠다는건 대우증권 M&A를 생각한 것이었다.

—무게중심 증권쪽으로 옮기나.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회사는 아모레퍼시픽이나 한미약품 같은 전문화된 업체다. 이런 전문회사가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회사들이 이노베이터이고 한국이 필요한 것은 이노베이터인데 생각보다 평가를 덜 받고 있다. 어차피 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이 큰 회사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니 증권이 끌고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산운용도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한 채 가고 싶다."

> 투자 전문가로서의 노하우
> 대우증권 IB 역량 결합해
> '투자 왕성한 나라' 만들 것

—해외 진출 계획도 있나.

"일본 노무라 같이 돼야 한다. 일본 노무라는 직원수 약 2만6000명이고 자기자본이 28조다. 한국 증권산업은 너무 뒤에 쳐져 있다.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 보다 더 안정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해야 과거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래에셋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다. 해외 인수합병(M&A)에 지속적 관심갖고 있다. 지금도 해외 업체와 협상 중이다. 한국 금융에서는 왜 삼성이 안 나오느냐. 삼성 같은 금융사 만들려면 구체적인 데이터 가지고 하면 만들 수 없다. 불가능한 상상을 해야 한다. 삼성, 현대 어떻게 만들었나. 불가능한 세상을 만들었다. 불가능한 꿈을 꿀 줄 알아야 한다."

—투자하는 기업이란 무엇인가.

"미래에셋은 투자 전문기업이면 좋겠다. 야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돈을 많이 버니까 편하게 살려고 부동산 사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렇지 않다. 아시아 국내총생산(GDP)의 45%. 일본을 빼도 40%가 중국 인도에서 나온다. 관광이 성장산업이다. 내수산업을 육성하자고 20~30년을 얘기했다. 그러나 5성급 호텔 만든 건 미래에셋 밖에 없었다. 센터원 짓고 덕분에 주변 개발이 이뤄졌다. 같은 맥락에서 페어몬트 호텔을 샀는데 호텔로 따지면 피카소를 산거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알 것이다. 위험하다고, 또 주저하면 중심에 설 수 없다."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이 있나.

"금융지주 회사를 가느냐 하는 문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지주사를 만들면 관리하기는 좋지만 야성을 잃을 수 있다. 미래에셋은 투자전문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

—산은자산운용,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산은자산운용은 한국 대표적 헤지펀드회사로 회사의 틀을 바꿔보려고 한다. 채권을 잘하는 강점 유지하면서 중위험 포트를 제공하는 회사로 만들 것이다."

/김문호 기자

한국의 자존심 '박현주 사단'엔 누가?

최현만·정상기·변재상 트로이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박현주 신화'는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피델리티, 템플턴 등 거대 투자회사들도 국내에서 만큼은 박 회장의 투자전략을 벤치마킹할 정도다.

박 회장이 미래에셋그룹을 키운 것은 그의 비전과 함께한 든든한 조력자를 빼놓을 수 없다. 오랜 동지인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이 대표적이다.

1997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창업했을 때부터 합류한 최현만 부회장(당시 동원증권 서초지점장)은 지금 그의 가장 가까운 동업자다. 최 부회장은 미래에셋 내에서도 박현주 회장의 경영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인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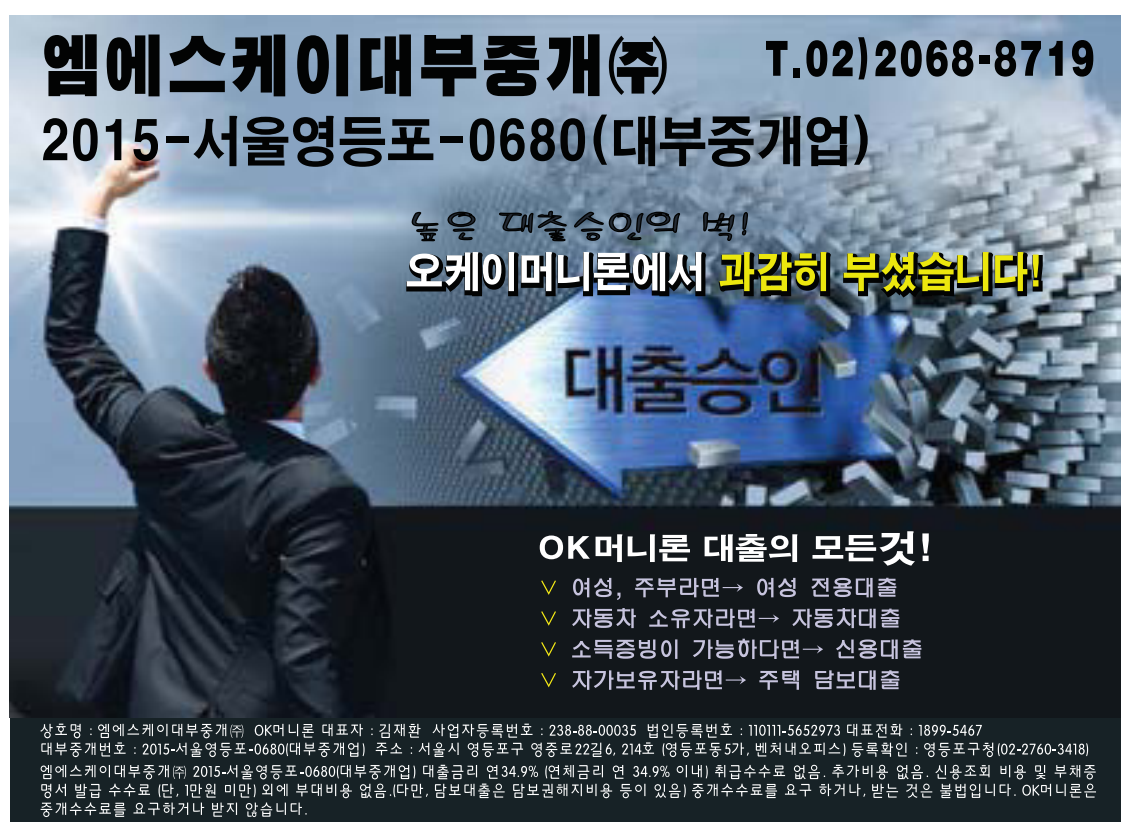
그는 1999년 취임 직후 브로커리지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해 '종합 자산관리'라는 선진화된 모델을 도입했다.

왼쪽부터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 정상기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변재상 미래에셋증권 사장.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자산운용업계에서 박 회장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1959년생 정 부회장은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합병한 뒤 구재상 전 부회장을 이을 차세대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그는 박 회장이 구상하는 헤지펀드, 대체투자 강화 등 새로운 미래에셋에서도 적잖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재상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2000년에 박 회장이 직접 영입했다. 박 회장은 변 사장이 삼성증권 과장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그를 눈여겨봤다고 한다. 이후 지난 2005년 미래에셋 증권 채권본부장으로 입사한 뒤 경영지원부문 부문장, 홍보담당 겸 HR본부장, 경영서비스부문 대표, 리테일부문 대표를 지내는 등 미래에셋 초기 원년멤버다. 변 사장은 지금도 박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호 기자



‘한일관계 새출발’ 원론 공감… 법적배상 각론 논란 소지

아베, 사죄·사과로 봉합…
韓 재단설립, 日 10억엔 출연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이날 마련된 3개 항 발표문을 두고 해석에 혼란를 남기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한일간 해묵은 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일본 정부는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했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선 “책임을 통감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 법적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이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여 국내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면 일본 정부가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단 설립 방안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라고 못박으면서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긴 상태다. 더불어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재단에 10억엔을 출자하기로 한 것이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예산출연과 관련해 ‘일본측의 표명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각 3개 항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공식합의문이 아닌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회견 후 구두발표문을 배포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할머니들의 엇갈린 반응… “수용 못해” vs “따르겠다”

회담으로 타결했단 발표는 섭섭
소녀상 이전은 한 목소리로 반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유희남 할머니가 회담 결과 발표를 지켜본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8일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할머니는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다른 할머니들은 법정 배상이 제외된 합의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타결을 지켜본 이옥선(89) 할머니는 “피해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기다렸는데 정부에 섭섭하다”며 “우리는 돈보다 명예를 회복받아야 하고 그래서 사죄와 배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합의문에 법적 배상 표현이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반면 유희남(88) 할머니는 정부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유 할머니는 “정부에서 기왕에 나서서 올해 안으로 해결하려고 애쓴 것 생각하니 정부가 하신대로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하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만족은 못한다”고 덧붙였다.

회담 결과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 할머니들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선 한 목소리로 이전을 결사반대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소녀상은 일본 정부가 세우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해결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이 배제된 한일 외교장관 간 회담만으로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양국 발표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강일출(88) 할머니는 “우리는 강제로 끌려갔다”고 강조하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 할머니는 “정부 관계자가 직접 와서 타결안에 대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기대를 많이 했고 우리 정부가 타결에 앞서 피해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알려주고 협의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당황스럽다”며 “피해 할머니 한분한분이 피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생존한 46명이 모두 모여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최선의 노력… 정신적 고통 감해지시길”

朴 대통령 대국민메시지 발표

대승적 견지에서 합의 이해 바래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청와대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제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고 금년에만 아홉 분이 타계하시어 이제 마흔 여섯 분만 생존해 계시는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 낸 결과로, 이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감해지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합의를 계기로 피해자 분들의 고통을 우리 후손들이 마음에 새겨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협상 전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방향으로 이 사안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 왔다”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여론에도 위안부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중국의 멈추지 않는 줄도산… 부실채권⬆

미국 금리인상·위안화 평가절하
부도 확산… 내년 금융위기 ‘경고’

산둥성 지난의 한 제조업 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중국 제조업체의 줄도산이 멈추지 않으면서 부실채권 급증하고 있다. 중국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는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부실채권 증가로 금융위기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장쑤성의 하이테크 화학업체인 화이안 지아쳉은 자금부족으로 채권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다고 최근 공시했고, 같은 지역의 화학업체인 화이안 파룬 역시 부채 과다와 영업손실로 인해 같은 처지에 놓였다. 허난성의 중소기업인 허난산리 탄소제품도 만기채권 상환을 포기했다.

현지 언론인 신징바오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제조업체가 몰려 있는 광둥성의 둥관과 선전, 장쑤성의 쑤저우, 저장성의 원저우에서도 줄도산이 일어났다. 둥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4000여 개에 달하는 제조업체가 도산했다. 도산 사태는 외국기업이라고 피해가지 않았다. 둥관에 자리한 노키아 공장도 문을 닫아야 했다.

중국 제조업의 몰락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말 쑤저우의 시계부품 공장 롄젠과기공사와 노키아 부품공장 홍후이가 도산한 이래 올해에는 레노보, HP, HTC 글로벌기업까지 공장의 인원을 정리해고했다. 지난 5월에는 아시아최대의 데님공장이자 한때 1만 명 이상을 고용했던 산둥성의 란옌그룹이, 8월에는 중국 50대 화학섬유업체인 저장성의 훙젠그룹이, 9월 들어서는 원저우의 섬유재벌인 좡지그룹이 도산했다.

중국 제조업은 저임금과 저금리에 힘입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지만 경기가 둔화되면서 여기에 발목이 잡혔다. 재고는 쌓여가고, 융자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도 사태는 더욱 확산되고, 이는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채는 조사된 신흥국 중 최고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2개 신흥국의 비금융 기업부채 23조4850억 달러 중 중국은 17조273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는 과다채무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명백히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민간기업과 국유기업들의 부도가 계속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람보르기니 키운 '브랜드·디자인의 마술사' 전격 영입

〈피츠 제럴드 전무〉 〈동커볼케 전무〉

맨프레드 피츠제럴드
제네시스 전략담당 전무

▲1963년생 ▲퀼른 대학교 경영학/경제학 학사 ▲람보르기니 브랜드총괄 ▲뤠베 마케팅총괄 ▲더 브랜드 앤드 디자인 컴퍼니 파트너

루크 동커볼케
현대디자인센터장 전무

▲1965년생 ▲아트 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 자동차디자인 학사 ▲아우디/스코다/푸조 디자이너 ▲람보르기니 디자인 담당 ▲벤틀리/부가티 디자인총괄

이주연
현대캐피탈 이사

▲1975년생 ▲노스웨스턴대 경영학 석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마케팅실장 ▲현대캐피탈 경영혁신1실장 ▲현대캐피탈 디지털신사업실장

안현주
현대차 이사대우

▲1972년생 ▲서강대 수학 학사 ▲현대·기아자동차 판매정보화지원팀 ▲현대·기아자동차 정보화전략팀장 ▲현대·기아자동차 IT기획실장

박종술
현대·기아차 수석연구위원

▲1964년생 ▲서울대 기계공학 학사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 변속기 시험팀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 변속기리서치랩장

현대차그룹의 정기 임원인사에서 두드러진 점은 정몽구 회장의 '품질경영'과 제네시스 브랜드 공략 강화에 대한 의지다.

정 회장이 올해 초 경영화두로 내세운 품질경영은 현대차그룹이 전 세계 완성차 시장에서 5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올해 정기 임원인사에도 정 회장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올해 현대차그룹 정기 임원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승진자 수가 대폭 줄어든 반면, 연구개발과 기술 부문의 승진자가 전체 대상자 중 절반에 가깝다는 점이다.

또 제네시스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해외 '용병'을 영입해 전면에 배치했다.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인 루크 동커볼케는 물론, 람보르기니 브랜드 총괄 임원 출신 맨프레드 피츠제럴드를 영입했다.

◆ 정몽구 회장 기술경쟁력 지속

정 회장은 올해 새해 경영화두로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올초 시무식에서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며 "글로벌 선도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정 회장의 품질 경영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연구개발과 기술부문 인력의 약진이다. 부사장 승진자 8명 중 절반인 4명이 연구개발·기술부문 임원으로 채워졌다.

서보신 현대·기아차 파워트레인·툴링 담당 부사장과 김헌수 현대·기아차 바디 기술센터장, 이영진 현대모비스 차량부품 본부장, 김기준 현대다이모스 P/T사업본부장은 나란히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또 이번 임원 인사에서도 수석연구위원 1명과 연구위원 3명을 새로 선임해 핵심기술분야의 전문 역량을 강화했다. 2009년에 처음 도입된 연구위원 제도는 연구개발 최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리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집중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연구개발 분야 수석연구위원은 변속기 부문 박종술 위원으로, 대리 직급으로 엔지니어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장영실상'을 역대 최연소로 수상하는 등 지금까지 200여건의 특허를 낸 변속기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박 신임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연구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후륜 다단변속기, 친환경차 전용변속기, 듀얼크러치변속기(DCT) 등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석연구위원으로 승진했다.

◆ '용병' 투입…제네시스 공략 박차

현대차그룹은 지난 11월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론칭했다. 제네시스는 현대차

연구개발·엔지니어 우대
공채출신 첫 女임원 탄생
MK '품질경영' 의지 반영

그룹이 현대 브랜드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 고급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론칭한 브랜드다. 현대차그룹은 제네시스에 자사의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선점하고 있는 고급차 시장을 잡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해외 '용병'을 마다하지 않고 능력있는 외부 인력을 충원했다. 피터 슈라이어 효과를 재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터 슈라이어는 현대차그룹에서 첫 외국인 사장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현재 기아차의 디자인 측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갖추게 했다. 일명 '호랑이 코'로 불리는 프론트 그릴은 K7을 출발점으로 K5·K9·K3에 이르기까지 K시리즈로 대표되는 기아차의 새로운 통합 디자인을 주도했다.

피어 슈라이어를 영입한 이후 기아차는 디자인 혁신에 이어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다. 슈라이어는 이후에도 현대차그룹 경영진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기아차의 디자인 라인업을 구축했고 그 공을 인정 받아 현재는 현대·기아차의 디자인을 총괄(사장)하고 있다.

때문에 제네시스의 고급 브랜드를 추진하는데 루크 동커볼케와 맨프레드 피츠제럴드의 합류로 기술력은 물론 디자인 분야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됐다.

이번에 영입한 루크 동커볼케는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다. 벤틀리 수석 디자이너 출신으로 현대디자인센터장(전무)을 맡는다. 앞으로 출시될 '제네시스'의 디자인은 그의 손끝에서 나온다고 해도 무방하다. 슈라이어 사장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현대차의 미래 디자인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루크 동커볼케는 1965년생으로 아트 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을 졸업했다. 아우디, 스코다, 푸조 디자이너를 거쳐 람보르기니 디자인담당, 세아트 디자인담당을 역임했다. 이후 벤틀리와 부가티 디자인 총괄로 일하면서 '올해의 유럽 디자인상' 등을 포함해 전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을 15회 수상한 스타 디자이너다.

또 람보르기니 브랜드 총괄 임원 출신 맨프레드 피츠제럴드도 영입했다. 그는 글로벌 고급차 시장 공략을 책임지게 될 제네시스 전략담당(전무)에 임명됐다.

람보르기니 브랜드총괄, 뤠베(LOEWE) 마케팅총괄, 더 브랜드 앤드 디자인 컴퍼니 파트너를 역임했다.

피츠제럴드 전무는 람보르기니 브랜드 총괄 당시 마케팅전략과 이벤트 및 광고, 전세계 우수 딜러망 발굴 등을 주도하며 람보르기니 브랜드 성장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향후에는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제네시스' 브랜드가 국내외 고급차 시장에서 혁신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 2년 연속 여성임원 나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명의 여성 임원도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다. 현대캐피탈 디지털신사업실장 이주연 이사대우는 이사로 승진됐고 현대차 IT기획실장 안현주 부장은 이사대우로 승진 발령됐다. 특히 안현주 이사대우는 공채 출신 첫 여성임원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신규임원인 이사대우와 연구위원 134명 중 32명(24%)을 연차에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파격적인 발탁 인사도 이날 단행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내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선점 및 판매 확대, 미래 신기술 우위 확보, 품질 및 브랜드 향상 등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라며 "현대자동차그룹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세계 초일류 자동차 업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안정 속 변화' 택한 롯데, 이인원 부회장 등 유임

2016 정기 임원인사 확정
새 면세점 대표엔 장선욱

롯데그룹은 28일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호텔롯데, 대홍기획 등 유통·서비스 부문 17개 계열사들의 이사회를 열고 2016년 정기 임원인사를 확정했다.

롯데그룹은 '안정 속의 변화'와 '미래 인재 육성'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인사에서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가 물러난 것을 제외하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대부분 유임됐고, 승진과 교체도 소폭에 그쳤다. 이는 경영권 분쟁의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그룹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정책본부의 이인원 부회장, 소진세 대외협력단

이인원

소진세

이홍균

장선욱

장(사장), 황각규 운영실장(사장) 등 주요 인사들과 롯데쇼핑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자리를 지켰다. 경영권 분쟁의 최일선에서 위기국면을 극복하고 조직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의 이홍균 대표는 롯데월드타워 면세 사업권 재승인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대홍기획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장선욱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롯데면세점 후임 대표로 선임됐다. 그는 호텔롯데 출신으로 호텔, 면세점 등 관광서비스업 관련 업무에 오랜 경험을 쌓아왔다.

신임 대홍기획 대표이사에는 이 갑 정책본부 운영실 전무가 내정됐다. 그는 정책본부 근무 이전에 롯데백화점에서 마케팅, 상품, 영업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다.

올해 전체 임원 승진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롯데쇼핑의 경우 지난해 신임임원이 23명이었으나 올해는 18명으로 20% 줄었다. 반면 그룹의 ICT를 담당하고 있는 롯데정보통신과 현대정보기술은 올해 5명의 신임임원이 추가되었다. 지난해 2명을 배출한 것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숫자다. 최근 그룹차원에서 유통사업의 '옴니채널'을 강화하는 롯데는 ICT관련 업종의 임원을 적극적으로 발탁해 정보통신 기반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롯데는 올해도 여성 임원을 배출했다. 롯데백화점의 김영희 상무보와 롯데홈쇼핑의 유혜승 상무보가 임원으로 승진했다.

2년 전 그룹 내 첫 외국인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롯데마트의 인도네시아 도매부문장 조셉 분타란(Joseph Buntaran)과 모스크바호텔 총지배인 모튼 앤더센(Morten Andersen)은 이번 인사에서 상무로 진급했다. 중국 진출 부진을 교훈삼아 동남아·러시아 등의 해외진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29일에는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등 식품·중화학제조 사업 부문의 임원 인사가 확정된다.

롯데는 "주요사의 대표이사 대부분을 유임시킴으로써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 데 중점을 뒀다" 며,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한 시장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는 적극적으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CES 빛낼 삼성·LG 대표 명품들

'100% 자연색' 퀀텀 닷 TV… '시각적 몰입감' 시그니처 TV

〈삼성〉 〈LG〉

삼성 "실생활 작은 불편까지 해소하려 노력"
LG "프리미엄 전략 강화하는 계기 될 것"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6'에서 신개념 가전제품을 선보인다.

2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CES 2016에는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해 전 세계 3600여개 업체가 전시부스를 만들고 참여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각 사들은 차세대TV,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카 등을 화두로 전략 제품을 대거 공개하고 흥행몰이에 나서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도 이번 CES에서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 대표적인 제품은 '퀀텀닷' 기술이 적용된 TV다. 퀀텀닷 TV는 색재현력이 100%에 달해 자연색에 가까운 화질을 구현하는 게 특징으로 삼성전자의 차세대 TV로 꼽힐 정도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퀀텀닷은 전류를 받으면 스스로 빛을 내는 반도체 결정이다. 이를 필름과 같은 형태로 디스플레이에 부착해 만들면 퀀텀닷 TV가 된다.

삼성전자는 세탁기와 청소기 등 다양한 생활가전 신제품도 내놓는다. 애벌빨래 기능으로 올해 글로벌 세탁기 시장을 뜨겁게 달군 '액티브워시' 세탁기는 인체공학적 설계도가 접목된 신모델을 선보인다. 로봇청소기 '파워봇' 신모델도 출시한다. 파워봇 신모델은 디지털 인버터 모터 출력을 향상시켜 흡입 유량과 진공도를 높였다.

또 다양한 스마트TV 게임을 공개한다. 스마트TV 게임은 다운받는 다운로드형 게임과 콘솔 기기 없이 즐기는 스트리밍 게임 등으로 이번 CES에서는 ▲다운로드형 게임 '리볼트3' '아스팔트8'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를 통한 '어쌔신 크리드3' '배트맨 아캄 오리진' 등 총 6종의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 '갤럭시S6 엣지+' '갤럭시노트5' 46.7㎝(18.4인치) 대화면 태블릿PC '갤럭시 뷰', 가상현실 헤드셋 '기어 VR',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기어S2' 등을 전시한다.

① 삼성전자의 '액티브워시' 세탁기. ② 삼성전자의 '리볼트3' 스마트 TV 게임.
③ LG전자 블루투스 헤드셋 '톤 플러스(HBS-910)'. ④ LG전자 프리미엄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CES 2016'에서 선보이는 가전 제품들은 최첨단 기술들은 물론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작은 불편함까지 해소하고자 노력이 담겼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번 CES 2016에서 프리미엄 가전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전제품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인 'LG 시그니처(SIGNATURE)'를 이번 CES에서 처음 선보인다.

LG 시그니처는 본질에 집중한 최고 성능과 정제된 아름다움, 혁신적 사용성을 지향한다. 대표적인 제품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는 본질적인 요소인 화면에 철저하게 집중해 시각적·청각적으로 더 탁월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세탁기에서 완성한 차별화된 기술인 스팀 기능과 DD모터를 활용해 세척력을 강화시킨 프리미엄 식기세척기를 공개한다. 또 이 제품에는 고온의 강력한 스팀으로 식기에 눌어붙은 음식물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살균효과도 높여주는 '트루스팀' 기능도 적용됐다.

국내 로봇청소기 최초로 증강현실을 탑재한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로보킹 터보 플러스'도 내놓는다.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증강현실 기능을 활용해 로보킹을 구석구석까지 제어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음향기기 전문업체 하만카돈과 기술제휴를 통해 만든 프리미엄 블루투스 헤드셋 톤 플러스 시리즈(HBS-910, HBS-900) 2016년형도 출시한다. 이 제품은 자동 줄감기 모듈을 적용해 기존제품 대비 무게를 줄이고 오랜 시간 사용해도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밖에 LG전자는 전용 운영체제(OS)인 웹OS 3.0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로봇청소기, 오븐, 조명 등 스마트 가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TV도 CES 무대에 공개할 예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CES 2016는 LG전자의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두산중공업

인도 화력발전 시장 진출

두산중공업은 인도에서 1000MW USC(초초임계압) 화력발전 시장에 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초초임계압 화력발전이란 증기의 압력(246kg/㎠)과 온도(593도)가 높아 발전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가 적은 친환경 고효율 발전 기술이다.

두산중공업은 인도 국영 화력발전공사가 발주한 1조1000억원 규모의 푸디마다카 화력발전소 보일러 EPC(설계·구매·시공) 공사를 수행한다. 지난 8월 두산중공업의 인도 현지 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그간 협의를 진행했다.

오는 2021년 인도 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완공될 푸디마다카 화력발전소는 총 4000MW 규모로 인도 최초의 1000MW 초초임계압 화력발전소가 된다.

김헌탁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지난 10월 하두아간즈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성과"라며 "향후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삼성 최고경영자 비공개 워크숍

새해 글로벌 경제침체 타개 위한 '끝장 회의'

계열사별 '3분 스피치' 형식

불투명 경기·격화되는 경쟁 대응방안 논한 것으로 알려져

삼성그룹의 수뇌부와 계열사 사장단이 한 자리에 모여 내년 경영전략과 목표를 점검했다.

삼성그룹은 28일 경기도 용인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최지성 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주재로 최고경영자(CEO) 워크숍을 개최했다.

매년 말 열리는 이 세미나는 지난 2012년, 2013년의 경우 1박2일로 일정으로 열렸지만 지난해부터는 하루로 일정을 축소했다. 올해도 하루 동안 마라톤식 '끝장회의' 형태로 열렸다.

삼성 사장단은 이번 회의에서 직접 사업전략을 브리핑한 후 심층토론을 진행해 새해 경영계획의 큰 틀을 확정 짓는다. 계열사별로 '3분 스피치' 형식의 모두발언 시간이 주어져 각자 현안과 사업전략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올해 세미나는 내년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경기 전망과 격화되는 시장 경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단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 플랜트, 건설 등 수년간 불황을 겪었던 업종의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저유가로 인한 글로벌 경기 위축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또 반도체, 스마트폰 등 등 주력 업종에서는 전반적 수요 둔화 속에 중국 등 경쟁업체들의 공세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전자계열 CEO들은 기존 스마트폰 사업 부문에서 중국의 기술 추격을 따돌리는 한편,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자동차 전장사업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글로벌 전략회의를 소집해 내년도 경영전략을 가다듬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수원 디지털시티 등에서 완제품 전략회의를 가진 데 이어 22일부터 이틀간 경기 기흥·화성 캠퍼스에서 반도체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정은미 기자

에어서울

국제항공운송 사업면허 취득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은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 사업면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서울은 국토교통부 등에 국내외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신청해 심사 및 승인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 첫 취항에 나설 계획이다.

노선은 아시아나항공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일부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중·단거리 노선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어서울은 기업통합 이미지(CI)도 공개했다. 한글 '서울'의 자음인 민트색 'ㅅ'과 회색 'ㅇ'이 교차해 있으면서 영문 Air의 A와 SEOUL의 O를 상징화했다. 상징 색상인 민트 그린(Mint Green)은 다른 항공브랜드와 차별적인 색상으로 개방, 리프레시, 휴식, 즐거움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회색은 안정과 신뢰를 뜻한다.

류광희 대표는 "에어서울은 안전교육 강화, 체계적인 안전운항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장 안전한 항공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현대重 노사 '2015년 임금협상' 타결

기본금 동결·자격수당 인상 등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5년 임금협상'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현대중공업은 28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찬성 58.78%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1만7134명 중 88.31%인 1만5131명이 투표해 참가해 찬성 58.78%(8894명), 반대 40.49%(6127명), 무효 0.56%(96명), 기권 0.08%(14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격려금 100%+150만원 ▲자격수당 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성과금 지급 기준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 출연 ▲특별휴가 1일(1/11) 등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 25일 첫 교섭을 가진 이후 6개월여에 걸쳐 총 43차례의 교섭을 가진 끝에 2015년 임금협상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에 임협이 타결된 것은 조합원들 사이에 회사가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임협에 시간을 소모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기간 끌어온 임협이 타결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노사관계 불안이라는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새해에 흑자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임금협상 조인식은 30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28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 노조원들이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JS대부2015서울금천-00029(대부업)
현금없이 사는 차
(당일출고)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차 + 취.등록세 + 보험료 모두 현금없이 당일 출고!
그리고 추가로 여윳돈 1,000만원도 당일 같이 드려요~ (전국)
저신용자 OK! 무직자 OK! 당일출고 OK!
아시아캐피탈 1833-7475
월00%연34.9%이내(연체이자포함)추가비용無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 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9층(가산동,뉴티캐슬)서울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02-2627-1312

www.arambi.kr

hiton®
SINCE 1963

졸라매고 아껴써도 걱정되는

겨울철 전기요금

히트온이 빼 드립니다!

전기장판 쓰자니 전기세가 걱정되고
보일러를 틀자니 가스비가 만만찮고

올 겨울 전기요금, 히트온 웜시트로 다이어트하세요!

ORIGINAL WARM SHEET hiton®

겨울맞이 BIG EVENT

본 이벤트 기간 동안 뉴지로 히트온 오리지널 웜시트 미니를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 분들에게는 히트온 스마트 웜쿠션을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기간 : 2015. 12. 21~2016. 1. 20 ▷수량 : 500세트 한정

EVENT 1 **히트온 오리지널 웜시트 미니(1인용) 1개 구매시**
히트온 스마트 웜쿠션 1EA (₩34,900) 무료증정!

EVENT 2 **히트온 오리지널 웜시트 미니(1인용) 2개 구매시**
히트온 스마트 웜쿠션 2EA (₩69,800) 무료증정!

| 언제 어디서나 **용도에 맞게 필요에 따라 골라 쓰세요!**

히트온 오리지널 웜시트 미니

히트온 오리지널 웜시트 미니

히트온 스마트 웜쿠션

| 집안은 물론, 야외에서도~ **히트온 웜시트 하나면 OK!**

히트온 웜시트는 친환경 천연 소재인 텐셀을 사용해 피부에 해를 주지 않고, 5중 접합구조와 특수 방탄 소재인 아라미드사 선심을 사용해서 열선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수납과 이동이 자유롭고 35W의 저 전력을 사용해 최고 65도까지 열을 낼 수 있어 집안은 물론, 프리 볼트제품(110~240V)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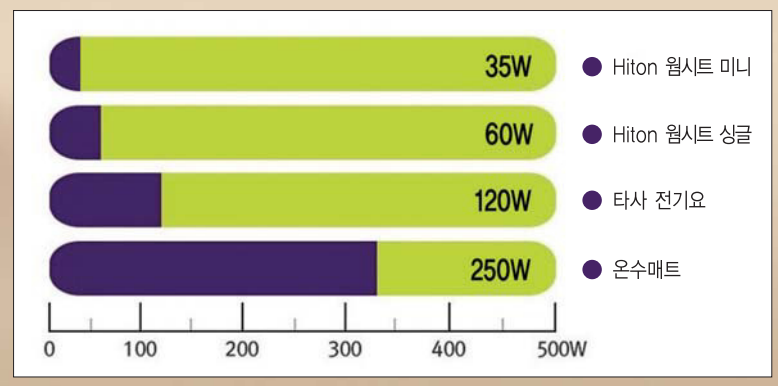
히트온 오리지널 웜시트 퀸

| 앞선 기술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편리하게!**

35Watt 전기료 절감
4 4단계 시간조절
4 4단계 온도조절
0.6mm 마이크로 DC열선
EMF EMF CERTIFICATE 전자기장환경인증

- 35W의 저 전력과 웜시트의 전력소비량이 전구 하나와 같은 초절전형 제품입니다
- 친환경 식물성 천연소재인 텐셀을 적용하여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시켜 줍니다
- DC 19V 적용으로 전자파 걱정없이 안전한 EMF 인증 제품입니다
- 컴팩트한 사이즈(145cmX55cm)의 경량(550g)제품으로 휴대가 간편합니다
- 5중 접합 구조로 발열선이 뭉치거나 접히지 않아 화재 걱정없이 안전합니다
- 4단계 온도 및 타이머 조절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조작이 가능합니다
- 0.6mm의 마이크로 DC열선으로 표면에 열선의 촉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 월등히 낮은 소비전력으로 **66% 전기요금 절감!**



*전기요 온수매트 전기료 비교(1일 8시간 30일 사용기준)

특별구성 : 히트온 웜시트 미니(1EA) ~~₩39,666~~ ₩39,666×3 | 히트온 웜시트 미니(2EA) ~~₩79,333~~ ₩79,333×3 (카드 무이자 3개월) | 제품 구입 • 문의 **080-611-5500** | 온라인 주문 **www.arambi.kr**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 2014-서울중구-0505호

TV 대체할 OTT 놓고 통신·방송 진영 격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오버더톱〉

유튜브와 달리 유료 플랫폼
美 넷플릭스 진출 계기
CJ E&M 등 경쟁 격화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OTT(오버더톱·Over The Top)' 시장을 성장성 있는 미래 수익 산업으로 보고 사업 재편과 신규 서비스 출시에 몰두하고 있다.

OTT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서비스를 일컫는다. 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를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Over The Top)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포괄한다. 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미디어 기기에서 동영상을 즐길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최대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국내 OTT 시장의 규모는 258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OTT 서비스가 자리잡기 시작했던 2012년(1085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시장 규모가 두 배 이상 성장했다.

국내 OTT 사업자는 모바일 IPTV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푹(pooq), CJ헬로비전의 티빙, 현대HCN의 에브리온TV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고,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유료방송 업계 최대 이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장기적으로는 OTT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반을 확보하고, OTT를 포함한 뉴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CJ헬로비전 인수 목적을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뉴미디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핫질(HOTZIL)'을 오픈한 바 있다. 핫질은 연예인, 인기 BJ, 전문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전문 콘텐츠 생산자에게 채널을 제공한다.

OTT 서비스에 진출한 사업자들.

이와 별개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매물에서 빠진 '티빙'은 2016년 1월 5일부터 CJ E&M의 콘텐츠로 서비스를 새단장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티빙은 지상파에 이어 종합편성 채널도 빠진 채 tvN 등 CJ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통신 및 방송사업자들이 OTT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중심이 모바일로 변화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성장성을 보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닐슨 보고서에 따르면 OTT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입자 방식의 주문형비디오(SVOD) 서비스 가입자들은 비가입자에 비해 콘텐츠 시청 시간이 평균 48분 길었다. 또 이용자의 25%가 35세 이하로 기존 TV 이용자보다 연령대가 낮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세대들이 향후 미디어 시장 판도를 전환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2018년 경엔 미국 광고시장의 1위 자리도 TV에서 인터넷으로 넘어가고, 콘텐츠 시장도 자연스럽게 OTT, 모바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내년 초 국내에 공식 진출하는 해외 OTT 사업자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넷플릭스의 전세계 가입자 수는 약 7000만명에 달하며, 2017년까지 서비스 제공 국가를 200개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쟁사 대비 두드러지는 전략은 '자체 콘텐츠' 제작 역량이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예산의 10% 가량을 자체 콘텐츠 제작에 사용했지만, 2016년부터는 투자액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증권 양승우 연구원은 "유튜브가 UCC 기반 콘텐츠를 유통하는 무료 플랫폼이라면 넷플릭스는 드라마·영화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료 플랫폼"이라며 "유튜브가 K팝의 현재 위상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넷플릭스의 아시아 진출 과정에서 CJ E&M, SBS 등의 국내 콘텐츠 업체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한진해운 신항만, 업무효율 높인다

LG유플러스
'LTE 기업전용망' 구축
산업 사물인터넷 확대

LG유플러스는 부산 신항에 위치한 한진해운 신항만의 터미널 운영 시스템(TOS)에 롱텀에볼루션(LTE) 기업전용망 서비스인 'LTE 고객전용망'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LTE 고객전용망은 일반 LTE망과 기업의 내부망을 분리시켜 LTE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직접 기업 내부망으로 바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LG유플러스의 빠르고 안정적인 LTE 통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일반 LTE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 데이터 유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어 보안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전처럼 와이파이(Wi-Fi)를 이용할 경우에는 통신 범위에 따라 많은 무선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구축해야 하며, 이용자의 위치에 따라 계속 AP를 변경해야 하는 등 원활한 통신에 한계가 있었다.

LG유플러스와 함께 업계 최초로 터미널 운영 시스템에 LTE 고객전용망을 구축한 한진해운신항만은 현재 관내 120여대의 컨테이너 운반차량에 LG유플러스 LTE 라우터를 탑재해 운영 중이다. 관제실에서 차량에 탑재된 시스템으로 화물 운반 지시를 하고, 이를 수신한 작업자는 좌표를 확인해 정확한 위치로 화물을 운반할 수 있다.

28일 진해에 위치한 한진해운 신항만 관제실에서 관련 구성원이 'LTE 고객전용망' 기반의 터미널 운영 시스템을 통해 관제하고 있다. /LGU+

와이파이 환경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에는 컨테이너 높이에 따른 음영구역 발생 및 무선 AP간 잦은 로밍 발생으로 통신 끊김이 있었지만, LTE를 이용함에 따라 끊김 없이 실시간 처리가 돼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LTE 고객전용망' 서비스는 스마트폰, 패드, 웨어러블 기기에도 적용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 사물인터넷(IoT) 솔루션도 선보일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최적의 승차감·고연비… 두토끼 다 잡았다

YG의 카톡 car talk

현대자동차 '아반떼'

국내 단일 차종 가운데 최초로 전 세계 누적판매 '1000만대'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모델이 있다. 바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맏형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다.

중형 세단 '쏘나타', 대형 '그랜저'와 더불어 현대차의 '3대 베스트셀링 모델'로 꼽히는 아반떼가 지난 2010년 5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새롭게 탄생했다. 이에 자동차 구매를 준비하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의 관심도 신형 아반떼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지난 주말 현대차 신형 아반떼를 시승해봤다. 시승 결과, 이번에 현대차가 내놓은 신형 아반떼는 '승차감'과 '연비'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아반떼는 작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신형 아반떼는 첫 인상부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신형 아반떼는 전장 4570㎜, 전폭 1800㎜, 전고 1440㎜의 차체를 갖고 있다. 차체 자체가 전 세대 대비 전장 20㎜, 전폭 25㎜, 전고는 5㎜ 길어지고 커진 덕분이다.

신형 아반떼의 매력은 외관보다 실내에서 느낄 수 있다. 우선 넉넉한 실내 공간이다. 운전자 포함 성인 네명이(평균 키 178㎝) 차량에 탑승해도 좁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특히 운전자가 버튼조작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페

현대자동차의 신형 아반떼 전측면 모습(위)과 메인대시 모습.

커진 차체·넉넉한 실내 공간
불규칙 노면에도 승차감 만족
소나타 축소판 느낌은 아쉬워

시아 대시보드의 모양을 보면 마치 쏘나타의 것을 축소시켜 놓은 느낌이 든다.

가장 중요한 주행성능을 테스트했다. 여의도를 출발해 경기도 분당까지 약 55㎞를 주행한 결과 승차감은 만족스러웠다. 노면이 불규칙한 도로나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도 출렁거림은 크지 않았다.

가속력도 만족스러웠다. 시동 버튼을 누르고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7단 더블클러치 자동변속기(DCT)의 부드러운 변속을 느낄 수 있다. 주행중 가속 페달을 밟으며 RPM 게이지를 확인한 결과 RPM 2000을 웬만해선 넘지 않았다. RPM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연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점은 아반떼에서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외모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현대차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배제하고 아반떼를 바라보면 중형 쏘나타와 대형 제네시스의 축소판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양성운 기자 ysw@

벤처기업 3만개 시대… 1년 매출 214조원

중기청-벤처기업협회, 실태조사
작년 국내총생산의 14.5% 차지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가 국내 벤처기업이 성장을 이어왔다는 내용을 담은 '2015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를 28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벤처기업 수는 예비 벤처를 포함해 2만9910개로 2013년 말 2만9135개보다 2.7% 증가했다. 국내 벤처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214조6000억원 규모이며 기업당 매출액은 71억9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485조원의 14.5%에 해당한다. 기업당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11.2% 올라 2009년부터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각 기업의 영업이익은 4억2000만원, 순이익은 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9%, 6.0% 증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며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의 실적이 성장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근로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71만7000명으로 전체 산업체 근로자(2013년 1534만5000명)의 4.7%였다.

/오세성 기자 sesung@

현대오일뱅크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복합주유소' 1호점 오픈

현대오일뱅크가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복합주유소' 1호점으로 현대셀프 화정점을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복합주유소는 설계단계부터 패스트푸드, 편의점과 같은 유통 소매점 입점을 고려해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변모시킨 주유소다. 현대셀프 화정점은 6개월에 걸친 상권 분석 끝에 패스트푸드점과 결합한 복합주유소로 오픈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내년 오픈 예정인 현대셀프 울산점, 호남제일주유소 등 지역별 상권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복합주유소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오세성 기자

돌아온 이순우… "저축은행의 나쁜 이미지, 꼭 바꾼다"

〈저축은행중앙회장〉

17대 저축은행중앙회장 취임
"변화가 중요… 패배의식 버려야"

금융권의 '마당발'로 통하는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사진)이 저축은행중앙회 신임 회장으로 돌아왔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 은행장으로 연임이 유력했지만 지난해 말 자리를 내려 놓고, 은행을 떠난 지 1년 만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9일 서울 충무로2가 세종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 전 행장을 1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이 회장은 이날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 무난히 회장 자리에 올랐다.

이 신임회장은 선출된 후 "저축은행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며 "저축은행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이 분명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부실사태 후 구조조정된 저축은행들과 싸잡아 '부실은행'으로 바라보는 고객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저축은행들도 패배의식을 버리고 고객들이 변화를 실감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임회장은 중앙회장직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과거 우리금융지주 내에도 저축은행이 있었는데, 그 때도 노력한 만큼 대우를 못 받아 안타까웠다"며 "변화하는 저축은행의 모습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최고 금리 인하를 비롯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규제를 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신임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출신이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첫 사례다. 시중은행장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앞서 이상근 전 한미은행장이 1997년~1999년 11대 회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이 신임회장은 1977년 우리은행의 합병 전신인 상업은행에 입행했다.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을 거쳐 2011년 3월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했으며, 2013년 6월에는 행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해 행장직을 겸임했다.

지난해 말 회장직에서 퇴임한 후에는 우리카드 비상근고문을 맡았다.

업계는 이같은 정통 은행맨 출신인 이 신임회장이 중앙회를 이끌며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조율에서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회 측은 이 신임회장에 대해 "금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실추된 저축은행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적임자"라며 "업체들도 반기는 분위기"라고 기대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우리은행엔 금융소외자 없어요"

금융 사각지대를 없애라

⑥ 우리은행, 다양한 특화서비스 눈길

장애인·외국인 위한 전문상담사 배치
점자스티커·전면접근 ATM기도 도입

우리은행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을 위해 도입한 전면접근형 ATM기 앞에서 한 남성이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은행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고령자·외국인 등 금융 소외 계층의 불편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은행들은 저마다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장애인 고객을 위해 비대면 채널 방식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특화지점을 개설하는 등 금융소외 계층의 불편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월 6일 언어(청각) 장애인을 위해 상담센터에 수화상담이 가능한 상담사 2명을 배치했다. 수화 상담을 원하면 화상 전화기 'See Talk(070-7451-9780~1)'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RS 추가 인증에 대한 청각 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이는 2채널 ARS 인증' 방식도 도입했다. 전화를 받기만 하면 바로 화면에 인증번호 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따로 음성 안내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통장용 점자스티커와 ARS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전면접근형 ATM기를 도입해 900여 개 점포에서 운영 중이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 지난 2002년 전담인력을 고용해 콜센터의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은행은 콜센터의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기존 8개에서 10개로 2개 늘렸다.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업무는 환전, 송금과 같은 일반 외환 업무와 통번역 서비스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객을 위해 혜화동·광희동 등 7개 영업점과 원곡동·김해 2개의 외환송금센터를 휴일에도 운영하고 있다. 광희동지점(몽골인)·혜화동지점(필리핀인) 등에는 해외 서적·음악 CD·영화 DVD를 구비한 쉼터도 마련했다. 이외에 중국 고객을 위한 데스크(수원역·제주)와 전문직 외국인을 위한 6개의 우리글로벌 데스크(본점 영업부·한남동·삼성타운·삼성 반도체·삼성디지털시티·삼성엔지니어링) 등 특화지점도 개설했다.

고령자 고객을 대상으로는 금융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노인 복지관, 실버대학, 경로당 등을 방문해 올해 총 20회 동안 누적 1300명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은퇴 준비고객과 은퇴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은퇴세미나 '웰리치 100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행복한 노후, 건강한 노후'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올해만 약 60~70여 회가 시행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나 금융 취약계층 같은 소외자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KB그룹

손보 양종희·카드 윤웅원 대표로 추천

나머지 계열사는 현 대표체제 유지

KB손해보험 대표로 양종희 KB금융지주 부사장(54·사진 왼쪽)이, KB국민카드 대표로는 윤웅원 전 KB금융지주 부사장(55·오른쪽)이 추천됐다.

KB금융은 28일 지배구조위원회를 열고 KB손보와 국민카드 등 8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KB손보 새 대표로 추천된 양 후보는 KB금융지주 재무·HR·IR 총괄 부사장과 전략담당 상무, 이사회 사무국장, 국민은행 서초역지점장을 지냈다.

KB국민카드 대표로 추천된 윤 후보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서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 전략기획부장, 경영관리부장을 거쳤다.

계열사 두 곳 외에 나머니 6개 계열사는 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KB자산운용 이희권(59), KB저축은행 김영만(57), KB부동산신탁 정순일(57), KB인베스트먼트 박충선(54), KB신용정보 오현철(56), KB데이타시스템 김윤태(59) 대표이사는 유임하게 됐다.

KB손보를 제외한 7개 계열사는 이른 시일 내에 주총을 열어 대표의 선임과 유임을 결정한다. 상장회사인 KB손보는 내년 3월 열릴 예정인 주총에서 양 대표 선임이 확정된다. /이정필 기자

DGB금융그룹

신사업본부 부사장에 노성석 부행장

임원 승진인사·조직개편 단행

DGB금융그룹이 최근 자회사 대표이사 2명을 포함한 총 12명의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조직을 개편했다.

DGB금융그룹은 지난 24일 '그룹 임원 인사위원회 및 그룹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DGB금융지주 및 DGB대구은행의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룹 시너지 역량 제고를 위해 진행된 이번 임원인사는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경영진을 유임하고, 현장 경험과 추진력을 갖춘 인재를 중용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인사 내용으로 ㈜DGB금융지주는 DGB대구은행 노성석 부행장(사진)을 신사업본부 부사장(상임이사)으로 선임했다. DGB대구은행 김경룡 본부장을 DGB경제연구소 부사장보로 승진 임용하고 DGB대구은행 오동수 부장을 전략경영본부 상무로 선임했다.

주력 자회사인 DGB대구은행은 본부장 2명의 부행장보 승진, 본부장 4명 승진 등의 인사를 통해 8명의 부행장과 7명의 본부장 체제를 갖췄다.

DGB금융지주는 신사업 강화 및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먼저 DGB금융지주는 효율적인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해 신사업부를 별도 본부로 분리해 신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채신화 기자

BNK부산은행 '사랑방 정기예금' 출시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28일 연 최고 1.75%의 이율을 지급하는 '사랑방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사랑방 정기예금'은 지난 9월과 11월 각각 출시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인 '평생통장'과 적립식 예금인 '연리지 적금'에 이은 부산은행의 세번째 계좌 이동제 대비 상품이다. /부산은행

"잊혀진 휴면보험금 2255억원 찾아가세요"

손해보험협회, 업계와 손잡고 찾아주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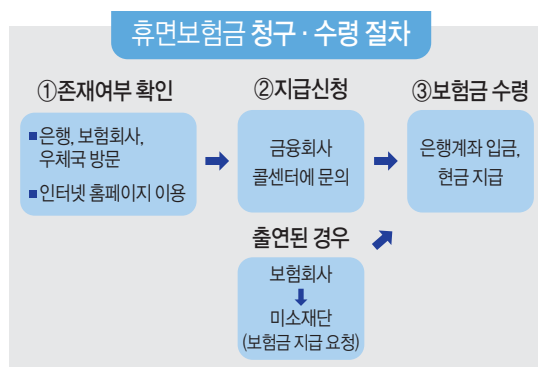
손해보험협회는 업계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손보협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은 2255억원 규모다. 휴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회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료 이체계좌가 있는 때에만 인터넷·전화신청이 가능하다. 회사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고액은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휴면보험금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휴면보험금 수령은 신청 후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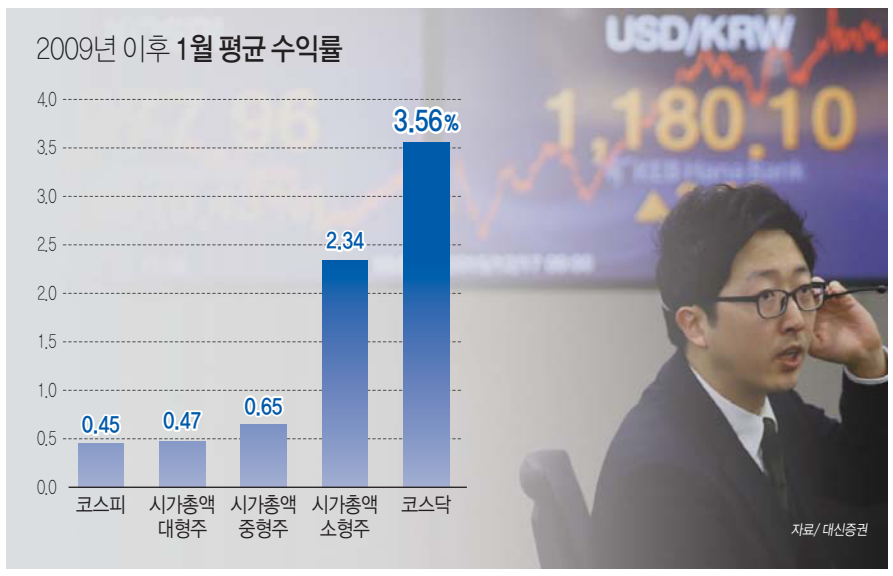
손보협은 서울 및 5개 지역본부(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휴면보험금 환원센터를 운영하며 조회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내년 1월 고객의 거주지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주소도 일괄적으로 변경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1월 효과냐 쇼크냐… 삼성전자 실적이 가른다

삼성전자 영업익 엇갈린 전망에도
최근 5년 패턴 고려 주가↑ 기대

"1월 상반월엔 중소형주 강세
하반월엔 격차 완화 보일 듯"



매년 초 국내 상장사들은 전년 4·4분기(10~12월) 잠정실적을 줄줄이 발표한다.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상장사는 올해 4·4분기에 기대보다는 낮지만 괜찮은 성적을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오르는 '1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28일 금융정보제공업체인 에프엔가이드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4·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6조7440억원이었다. 2014년 4·4분기(5조2880억 원)보다 27.5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52조7300억원보다 늘어난 53조5270억원이 예상된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추정치는 200조7920억원이다. 영업이익은 26조9890억이다.

지난해보다는 늘겠지만 당초 예상했던 영업이익 7조원 대에는 못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국투자증권 유종우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4·4분기 영업이익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패널의 수요약세와 제품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1·4분기를 저점으로 이익증가세가 예상되고 배당금액 증가 및 연간 지속될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정책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주목

금융투자업계는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잠정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 경우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달 전과 비교해 대부분의 상장사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 걱정을 낳고 있다.

금융정보 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곳 이상 증권사 추정치가 있는 217개 상장사들은 올해 4·4분기에 436조6000억원의 매출액과 30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전분기나 직전분기보다 개선된 실적이다. 한달전에 비해 각각 0.2%와 1% 가량 눈높이를 낮췄다. 저유가 등으로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2012년 이후 폐장일로부터 7일 전후까지 약세를 기록한 뒤 강세로 전환해 1월 내내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코스닥의 1월 평균 상승률은 3.67%로, 0.91% 상승에 그친 코스피를 2.76%포인트 앞섰다.

◆중소형주 '1월효과' 기대

특히 올해 1월은 코스닥이 한 달간 8.95%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코스피(1.76%)보다 무려 7.19%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0년 이후 경험적으로 보면 1월 상반월은 중소형주의 강세가, 하반월은 상대 수익률 격차의 완화가 나타난다"며 "특히 코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4.2%로 코스피 0.6%를 웃돌며 월초에는 코스닥 중심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1월 초 국제 유가와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4·4분기 기업이익에 대한 부담이 공존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악재를 선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00년 이후 16년간 1~2월 중 소형주가 강세를 보인 경우가 13회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12월 하순 중소형주의 저점 매수는 확률 높은 배팅"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국내 최초로 출시

NH투자증권은 개인별 재무목표에 따른 최적의 맞춤 매매전략 제시, 상장지수펀드(ETF) 자동매수, 목표수익률 도달 시 매도 안내 등을 포함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인 'QV 로보 어카운트(QV Robo Account)'를 28일 출시했다. QV 로보 어카운트는 투자성향과 재무목표에 따라 최적의 투자대상과 매매전략을 제시한다.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내년 기업 매출 7% 증가 예상… 성장주 일단 유리

㉓ 가치주 vs 성장주

반등 시 가치주의 주가 상승 기대

가치주와 성장주에 투자하는 전략 모두 주가가 기업가치로 회귀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이용한 투자전략이다.

가치주는 기업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주식이고, 성장주는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큰 주식이다. 가치주는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밸류에이션(valuation) 지표가 낮고, 성장주는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미래의 성장성이 좋아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주식이다.

가치주와 성장주 중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는 경기와 관련이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들의 이익이 잘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주가 갖고 있는 성장성보다 가치주가 갖고 있는 저렴함이 더 매력으로 부각되는 것이고,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들의 이익이 잘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주가 갖고 있는 성장성이 희소해지면서 더 매력요인으로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선행지수는 상승했음에도 성장주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경기가 좋으면 가치주 주가가 상승한다는 공식이 깨진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한국기업들의 매출액은 제자리 걸음을 보이면서 매출액 성장률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제 기업들이 이익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다.

기업의 매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한국시장에서 성장주가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성장주가 귀해지면서 성장주 주가가 가치주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내년 매출성장률은 6.8%로 반등이 예상된다. 한국시장 성장성이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매출성장률이 반등한다면 가치주의 주가 상승을 조심스럽게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다시 0%대 매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의 매출액 성장률을 지켜보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김민규 매크로·자산배분전략팀 선임연구원

KB WM CAST 앱을 통해 자세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드 위험등급, 내년 7월부터 6단계 세분화된다

'펀드 위험등급 분류기준 개선방안'
3년 간 실제 수익률 변동성 반영

내년 7월부터 펀드 투자위험 등급이 해당 펀드의 3년 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반영해 6단계로 세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레버리지 펀드 등 초고위험 펀드에 별도 위험등급을 부여하는 내용의 '펀드 위험등급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펀드 위험등급은 주식 편입비중을 기준으로 1등급(매우 높은 위험)부터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분류된다.

예를 들어 펀드 설정 단계에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위험도가 매우 높은 1등급으로, 머니마켓펀드(MMF)에 주로 투자하면 위험도가 낮은 5등급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이는 같은 등급의 펀드라도 투자 종목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레버리지펀드는 동일한 주식지수를 추종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2배 이상의 변동성을 가짐에도 동일한 1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현행	개편안
◇ 운용사가 펀드 등록시점에서 투자예정자산 및 비중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펀드 청산시까지 불변	◇ 운용사가 개별 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매 결산시점마다 등급을 (재)분류
(예시) ①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2등급 ②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구, MMF ⇨ 5등급	(예시) ① 펀드의 최근 3년간 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5%~25% 사이인 경우 ⇨ 2등급 ② 펀드의 최근 3년간 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0.5% 이하인 경우 ⇨ 6등급
	※ 수익률 변동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를 연환산하여 산출

자료=금융감독원

또 약관상 주식의 최대 편입비중은 높지만 실제 비중이 낮은 공모주 펀드도 일반 주식형과 같은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펀드의 위험등급 분류를 현재 투자예정 자산 기준에서 해당 펀드의 최근 3년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운용사가 등록할 시점에서의 투자 예정 자산 및 비중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분류되고, 이는 펀드 청산시까지 변하지 않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매 결산시점마다 등급이 재분류된다.

최근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25%(연환산)를 초과하면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5~25%일 때 2등급(높은 위험), 10~15%일 때 3등급(다소 높은 위험), 5~10%일 때 4등급(보통 위험), 0.5~5%일 때 5등급(낮은 위험), 0.5% 이하일 때 6등급(매우 낮은 위험)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동산 평가와 같이 시가평가가 어렵거나, 레버리지펀드처럼 투자자 보호를 감안한 등급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투자 대상 자산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

금감원은 서식 개정 및 운용사·판매사의 내규·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 6개월을 부여한 후 내년 7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보배 기자 bobae@

국내 사모펀드 순자산총액 200조원 돌파

규제강도 낮고 운용 자유로워
"신규 운용 수요 충분히 높을 것"

국내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28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국내 사모펀드 순자산은 하루 사이 3458억원 늘면서 총 200조241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4년 말 사모펀드가 국내에 도입된지 11년 만이다.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49인 이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소수의 고액자산가 또는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규제의 강도가 공모펀드보다 낮고 운용이 자유롭다.

최근 수년 동안 초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시장도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부동산과 인프라, 선박, 유전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몸집을 꾸준히 키우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 말(173조원)보다 30조원 가량 순자산이 늘었다.

반면, 공모펀드는 투자자들이 증시 흐름에 맞춰 '저점 매수-고점 환매' 투자 패턴을 보이면서 성장이 주춤한 상황이다.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하면 이미 2013년 5월을 기점으로 사모펀드는 덩치면에서 공모펀드를 앞질렀고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설정된 펀드 수도 22일 현재 사모펀드는 8990개로 공모펀드(3768개)보다 훨씬 많다.

게다가 지난 10월 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과 등록, 판매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증권사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사모펀드의 성장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사모펀드는 고객 기반 및 수익원의 다변화, 환매 등에 따른 운용 변동성 축소, 높은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체계에 따른 수익성 제고 등의 특징이 있다"며 "사모펀드 신규 운용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송도 캠퍼스타운 애비뉴’ 왜 뜨나 했더니…

초역세권·공원조망·184개 점포… 집객효과 기대

영화관·은행 등 핵심 점포 유치
기업형 슈퍼마켓도 속속 입점
초기 임차인 ‘수익보장제’ 실시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1%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우량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중에서도 개방감과 집객 효과가 좋은 스트리트형 상가가 주목 받았다. 스트리트형 상가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판교 아브뉴프랑, 이태원 경리단길, 합정 메세나폴리스, 일산 웨스턴돔, 호반써밋플레이스 등 길을 따라 들어서 있는 상가를 말한다.

쇼핑 동선이 편리하고 문화와 휴식공간이 어우러져 데이트를 즐기러 나온 연인과 가족단위 나들이 고객 등 유동 인구 확보로 초기 분양률이 높고 공실률이 낮은 특징이 있다.

판교 아브뉴프랑은 ‘제2의 가로수길’로 불리며 지역명소로 자리 잡았다. 상가 일대인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40번지 3.3㎡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755만원선에서 올해 880만원으로 16.55%가량 증가했다.

송도 캠퍼스 타운 전경.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역세권에 입지한 수익형 부동산은 유동인구로 인해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불황기에도 가격 하락의 위험이 적다”며 “특히 대규모 배후세대가 확보된 택지개발지구내 역세권 스트리트형 상가는 고정적인 수요 확보로 향후 상가 매각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분양 중이거나 완공을 앞둔 스트리형 상가 중에서는 송도 국제도시 내 핵심상권에 위치한 ‘송도 캠퍼스타운 애비뉴’가 주목받았다.

‘송도 캠퍼스타운 애비뉴’는 지상1층~지상3층, 전체면적 2만4749㎡, 184개 점포로 이뤄진다. 10m 이상의 넓은 중앙통로가 조성돼 이용 고객의 보행 여건을 확보했으며 전층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수직 이동시의 피로감도 줄였다.

2층과 3층에는 일부 테라스 상가가 들어선다. 단지내 공원 조망이 가능한 구조이며 아파트에서도 상가 테라스 조망이 가능해 집객 효과가 기대된다.

상가는 송도국제도시로 진입하는 메인 통로인 송도1교를 건너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 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 역세권으로 고객 접근성이 높다. 상가 내에는 조기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 은행, 대형 프랜차이즈 등 핵심 점포가 유치되고 있다. GS슈퍼마켓의 입점이 확정된 상태이며 지난 10월에는 스타벅스 유치 계약이 완료됐다.

이외에 입주 기간 종료 1개월 뒤부터 24개월 동안 ‘수익보장제(일부 점포 제외)’도 실시하고 있다. 수익보장제란 초기 2년간 일정 수익률을 확정 지급하는 제도로 상가 계약자가 수익률에 구애 받지 않고 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입점이 빠를수록 임대료 지원금이 많은 점이 장점이다.

상업시설이 위치한 송도7공구 상권 가치는 검증된 상태다. 송도7공구는 국제화 복합단지로 만들어져 약 5500명이 상주하는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한국뉴욕주립대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대학 캠퍼스가 들어서 있다. 서울의 홍대거리나 신촌, 이대 등의 대학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송도 5공구 내에는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과 백화점,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들어선다. 향후 송도 캠퍼스타운 애비뉴에서 홈플러스로 이어지는 거리가 송도국제도시의 메인 상권으로 급부상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올해 분양 시장에서 스트리트형 상가의 인기는 지속됐다. 반도건설이 지난해 동탄2신도시에 공급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단지 내 상가 ‘카림 애비뉴 동탄 1차’는 최고 2000만원의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붙었다. 롯데건설이 지난 8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공급한 ‘롯데캐슬 골드파크’ 내 스트리트형 복합상업시설 ‘마르쉐도르’는 최고 595대1, 평균 21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됐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전세난·저금리에 거래량 최대

‘3대 이슈’로 돌아본 올해 부동산 시장

1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도입
2 월세 급증… 수익형 부동산 주목
3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호황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걷히고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출발했다.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이 맞물리면서 분양 시장은 호황을 맞았다.

올 초부터 분위기를 타던 분양시장은 2000년대 들어 최대 물량인 50여만 가구를 쏟아내며 절정을 이뤘다. 이런 가운데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월세 비중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 기조와 은퇴세대인 베이비부머의 임대수요가 맞물려 월세 가속화가 이뤄졌다”며 “내년에도 이 현상이 지속돼 서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우처제도나 소득공제 확대 등 세경감 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 ‘뉴스테이’ 첫선…전세난민 환호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주거비 높은 서울살이에 지친 실수요층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8~10년의 최장거주보장과 연 5% 이내의 임대료 상승 제한이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대림산업이 지난 9월 인천 도화지구에 공급한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는 평균 5.5대 1, 최고 6.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1년간 인천 평균 청약경쟁률인 2.6대 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10월 공급된 ‘수원권선 꿈에그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단지와 인접한 축산과학원 이전지에 생태주거단지 조성, 공군비행장 이전지에 첨단과학연구단지 등 ‘스마트폴리스’가 들어선다는 기대감에 전체 2400가구 모집에 평균 3.2 대 1, 최고 9.9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 ‘월세시대’ 가속…수익형 부동산 몸값↑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 대로 낮추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졌다. 지난달 기준 월세(보증부 포함)거래 비중은 44.6%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6%포인트 늘었다. 월세 거래건수도 5만13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다. 이에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견본주택에서 입주예정자와 담소를 나눴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내 부동산 밀집상가 전경. /연합뉴스

상가수익률은 홍대·합정 상권이 인구 유입으로 전년 대비 약 1.83% 상승했다. 오피스텔은 강남 기업 대거 이전으로 종로, 공덕, 사당, 분당이 수혜를 봤다.

◆ 상한제 없어지니… 재건축·재개발 호황

부동산 3법 통과로 지난 4월 1일부터 공급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호황을 맞았다. 올해 시장은 지난해보다 2배 가량 증가한 30조원에 달했고 청약 경쟁률은 상위 10곳 중 7곳을 차지했다. 올해 청약 경쟁을 주도한 곳은 강남 재건축 시장이다.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 일반 분양된 단지는 4곳, 368가구였으며 1순위 청약 통장은 1만2781개로 평균 3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739만원을 기록, 같은 기간 분양된 일반 아파트 평균 분양가 1157만원보다 1582만원(136.7%) 비쌌다. 강남 3구에서 일반 분양이 가장 활발히 이뤄진 서초구는 12월 현재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 2154만원의 2배 수준인 4150만원을 기록 중이다.

/박상길 기자

에콰도르 낙도 중학교에 교육시설 기부

SK건설
톨리타섬 트레세 데 마요 학교
교실·운동장·전기시설 등 확충

SK건설은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주 톨리타섬 트레세 데 마요 학교에 교실, 운동장 등 교육시설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SK건설 에스메랄다스 정유공장의 현장 임직원들은 뱃길로 1시간 30분 가량 떨어진 인구 600명의 작은 섬 톨리타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을 듣고 이번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SK건설은 지난 6개월간 100만 달러를 들여 교실 6동과 화장실 8동, 운동장, 컴퓨터실, 실험실 등 교육시설을 새로 지었고

안승갑 SK건설 부장(왼쪽 첫번째), 카를로스 파레하 에콰도르 에너지장관(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준공기념 현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건설

오래된 전기 및 오·배수 시설 등을 보수해 준공식도 가졌다.

준공식에는 카를로스 파레하 에콰도르 에너지장관이 참석해 SK건설에 감사를 표했다. 트레세 데 마요 학교는 이번 시설 확충으로 중등 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 승격됐다.

SK건설 관계자는 “250여 명의 학생들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는 생각에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조리속도 빠른 전기레인지 선보여

쿠쿠전자
3구형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출시
자동타이머·잔열표시 기능 등 탑재

쿠쿠전자 전기레인지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2016년 신제품 ‘3구형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모델명: CIHR-BL301FB·사진)’를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국내 소비자 취향에 가장 최적화된 한국형 프리미엄 전기레인지에 초점을 두어 개발됐다. 이에, 빠른 조리를 선호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높은 열효율로 조리속도가 빠른 인덕션(IH) 화구 2개를 배치하고 하이라이트 1구를 추가 조합했다.

가스레인지보다 조리시간을 50% 이상 단축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우림, 보온, 전골, 그릴, 팬요리 등을 원하는 만큼 알아서 가열해주는 자동타이머 기능과 고열주의, 잔열 표시가 가능하며 아이들의 조작 등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안전잠금 등을 탑재해 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했다.

쿠쿠전자의 ‘3구형 하이라이트 에코레인지’의 가격은 일시불로 구매 시에는 139만원, 렌탈가격은 3만9900원(39개월)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갤러리아면세점’ 훈풍에… 여의도 상권 떠오른다

‘갤러리아 63’ 28일 프리오픈
전경련 회관내 푸드코트 개장 등
주말맞아 손님끌기 경쟁 본격화

일평균 4만5000명이 몰리는 여의도 IFC몰(왼쪽)과 면세점 지상 3층 ‘K-스페셜홀’에서 쇼핑을 하고있는 고객들. /한화갤러리아

여의도 상권이 꿈틀거리고 있다. ‘갤러리아 면세점 63’ 개장 덕분이다. 여의도는 대표적인 오피스타운이다. 주중에는 체류 인원 및 유동인구가 풍부하지만 주말에는 거리에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도 한달이면 1주일 이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이는 여의도 상권의 숙명이다.

그런 여의도가 달라지고 있다. 첫 시작은 호텔이다. 켄싱턴 호텔에 이어 메리어트, 콘래드 호텔이 잇달아 개장했고 복합문화공간인 IFC몰이 가세하며 여의도상권 재건의 신호탄을 쐈다. 여기에 전경련 회관 내 ‘차이나 플랜인’을 비롯 최근 한식푸드코트 ‘더스카이팜’이 문을 열었고 ‘갤러리아면세점63’까지 개장하면서 여의도의 주말 풍경이 바뀌고 있다. 주말 여의도역(5, 9호선) 승하차 인원도 2배 가까이 늘었다.

◆ 갤러리아면세점63 본격 개장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서울 서울 시내 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 63’이 28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갤러리아면세점 63은 ‘금빛 여정의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총 369개의 브랜드를 선보이며 여의도·영등포지역을 미국 맨하튼과 같은 선진국형 관광지로 부상시킨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하1층~지상3층까지 4개층 총 10153㎡(약 3072평)규모로 조성된 면세점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층별로 살펴보면 지하1층 ‘그라운드 플로어’에서는 고급 잡화,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가 들어섰으며 1층에는 명품시계, 보석이 입점해있다. 1층은 현재 일부만 개장했으며 내년 3월 그랜드 오픈 때 전면 개장할 예정이다. 2층에는 국산 화장품, 패션, 잡화 등 들어섰으며 3층은 ‘K-스페셜홀’로 국산품과 중기(中企)상품이 주를 이룬다.

면세점 지원을 위해 63빌딩도 개편하고 있다. 우선 수족관 ‘아쿠아 플라넷 63’은 새 단장을 한 후 내년 7월에 재개장한다. 중식 레스토랑, 고급뷔페 등도 차례로 재개장할 예정이다. 또 면세점 바로 위층인 지상 4층에는 복합 미디어카페 ‘RUE‘(류)를 개관한다.

63빌딩 인근에 위치한 선유도 공원, 국회의사당, 샛강생태공원, 양카라 공원, 문래창작동, 노량진 수산시장 등과의 관광 인프라 결합을 통해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에도 힘쓴다. 갤러리아면세점 63의 내년 매출 목표는 5040억원이다.

◆ 복합문화공간 IFC의 힘

IFC몰은 쇼핑과 외식, 영화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멀티플렉스 CGV는 여의도내 유일한 영화관이라는 장점으로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높은 예매율을 자랑한다. IFC몰은 국내외 SPA 브랜드가 한곳에 모여 있어 쇼핑 편의성이 높다. 한식, 중식, 일식부터 멕시칸 요리까지 다양한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주중 주말 구분없이 일평균 약 4만5000명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IFC몰의 등장과 여의도 호텔 증가로 여의도 주변 식당들도 주말 영업이 크게 늘었다. 증권거래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주말에는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을 정도로 장사가 안됐다”며 “최근에는 외국인 고객들도 많아져서 일부러 중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식당도 많다”고 말했다.

◆ 호텔 객실가동률도 ‘쑥’

특급호텔 가운데 여의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켄싱턴호텔은 2009년부터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으로 항상 만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중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80%에 육박하기도 했다.

7성급호텔로 비교적 숙박료가 비싼 콘래드호텔도 외국인 관광객의 예약에 힘입어 최근 객실가동률이 90%대로 올라섰다. 콘래드호텔은 갤러리아 면세점 개장으로 객실가동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강유람선도 외국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유람선 이용 고객 중 외국인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특히, 내국인 고객이 많지 않은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전체 고객수도 크게 늘었다. 이처럼 관광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주말 여의도역(5, 9호선) 승하차 인원도 IFC몰과 주요 호텔 오픈 전 대비 1.4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현희·김성현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새로 나왔어요

어퓨 ‘짱구 에디션’ 도라에몽 이어 에디션으로 출동하는 짱구

에이블씨엔씨의 어퓨는 클렌저, 수분크림, 핸드크림 등 3종 9품목으로 구성된 짱구 에디션(사진)을 출시했다. 짱구 에디션은 ▲딥 클린 클렌징 오일(160㎖·6800원) ▲딥 클린 클리어 워터(165㎖·3800원)▲딥 클린 밀키 클렌저(140㎖·4800원)▲딥 클린 버블 폼(200㎖·3800원) ▲딥 클린 폼 클렌저(130㎖·1900원) ▲아쿠아 네이처 듀드롭 클라우딩 크림(50㎖·4800원)과 핸드크림 3종으로 구성됐다. 핸드크림은 35㎖ 기준 각 3000원. /유현희 기자

쎈쿡 ‘100% 잡곡밥’ 3종 ‘초고압+가마솥공법’의 부드러운 잡곡 느끼자

동원F&B가 첨가물 없이 100% 잡곡과 물로만 지은 ‘쎈쿡 100% 잡곡밥(사진)’ 3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잡곡밥은 발아현미밥, 현미밥, 통곡물밥이며 ‘초고압공법’과 ‘가마솥공법’을 통해 잡곡을 부드럽게 조리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각각 195g 1개당 2480원이다. /유현희 기자

네스카페 ‘크레마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크레마도 즐기고 디카페인도 즐기고

롯데네슬레코리아가 신제품 ‘네스카페 크레마 디카페인 아메리카노(사진)’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물을 이용해 카페인만 제거하는 네스카페의 ‘워터 디카페인’ 기술이 적용됐다. 네스카페 크레마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는 10개입 및 미니 30개입 단위로 출시되며, 이 달부터 전국 할인점과 네스카페 온라인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유현희 기자

강강술래 국내 최저가 와인직거래는 ‘와인원플러스’로

강강술래는 국내 최대 외식테마파크로 조성중인 고양시 늘봄농원점에 대한민국 최저가 창고형 와인직거래장터 ‘와인원플러스’(사진)를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와인원플러스 매장은 1+1코너, 균일가 코너, 박스코너, 프리미엄코너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게 팔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의 와인을 정상가 대비 최대 85% 할인 판매한다.

강강술래는 오픈 기념 이벤트로 멤버십에 가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와인스크류를 무료 증정하며, 구매한 와인은 매장 내 라이브공연과 함께 다양한 주류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코리안 다이닝 펍 ‘주향천리’에서 코르크차지 없이 맛볼 수 있다.

한편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한국솔가의 ‘에스터-C 비타민 500mg’(50캡슐)과 ‘리히텐슈타인박물관의 명품전-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전 티켓을 선물한다. /유현희 기자

SPC, 해외 200호점 돌파… 글로벌 가맹사업 잰걸음

해외 진출 이후 11년만에 中서
‘링윈광창점’으로 200호 개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해외 매장 200호점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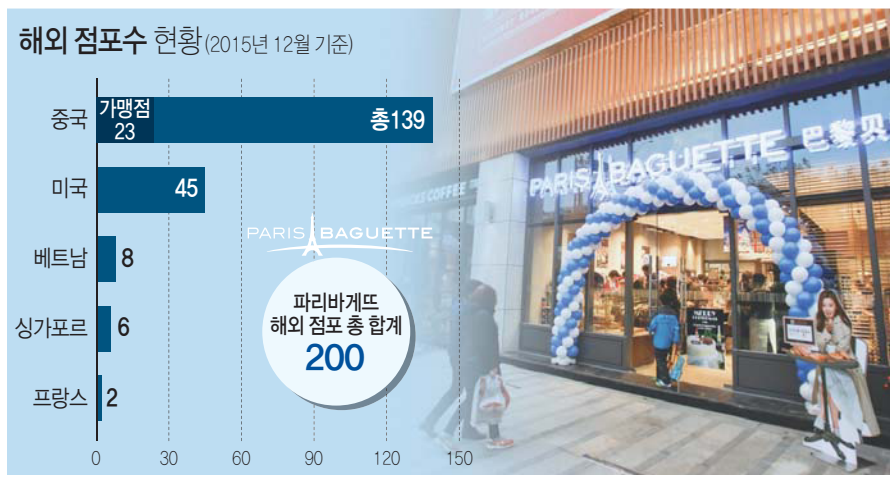
SPC그룹은 중국 상하이에 파리바게뜨 해외 200호점인 ‘링윈광창점’을 개점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외 200호점 돌파는 국내 베이커리 업계 최초다. 지난 2004년 파리바게뜨의 첫 해외 진출 이후 11년, 2012년 해외 100호점인 베트남 까오탕점을 연지 3년여만이다.

파리바게뜨 링윈광창점은 중국 내 23번째 가맹점이다. SPC그룹은 해외 200호점을 가맹점으로 오픈하면서 해외 가맹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SPC그룹은 해외 진출 이래 현재까지 프랑스, 중국,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해외 5개국에 진출해 주로 직영 형태로 운영해 왔으며, 가맹점은 중국에만 운영하고 있다.

SPC그룹은 내년에 출점 예정인 100여개 이상의 해외 파리바게뜨 매장을 가맹점 중심으로 개점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가맹사업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G2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만 2000개 이상의 매장을 연다는 목표다.



파리바게뜨가 중국 상하이에 링윈광창점을 오픈하면서 글로벌 200호점 시대를 열었다. 링윈광창점은 중국 내 23번째 가맹점이다. /SPC그룹

SPC그룹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중국에서 직영 중심의 운영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온 결과 최고급 베이커리 브랜드로 자리잡았으며, 가맹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내년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여는 등 해외 가맹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지난 10월 그룹 창립 70주년 기념사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1만2000개 매장을 열고, 일자리를 10만 개 이상 창출해 세계 시장이 우리 청년들의 일터가 되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유현희 기자

이마트, 베트남 호찌민에 첫 점포 오픈

현지화 전략에 방점 찍은 고밥점
라오스 등 진출 전략적 교두보로

이마트가 호찌민에 베트남 첫 점포인 고밥점을 개점했다. 고밥점은 이파트가 해외에 점포를 낸 2011년 이후 4년만이다. 고밥 지역은 호찌민의 인구밀집지역이자 최대 상권이다.

이마트가 28일 베트남 첫 점포인 호찌민 고밥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그 규모는 총 10만578㎡(3200평)이다.

이마트는 고밥점을 라오스·인도네시아·미얀마 등으로 진출할 전략적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고밥은 1㎢당 인구가 2만8000명으로 호찌민시의 평균인 4000명의 7배에 이른다. 평균 소비지출 규모도 시 평균보다 33% 높은 중산층 밀집 지역이다.

이마트는 앞으로 호찌민 시내에 2호점을 연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밥점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에 방점을 찍은 매장이다. 점포 인력부터 상품까지 베트남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고밥점은 오토바이 이용률이 80%가 넘는 베트남 현지의 사정을 감안해 오토바이 1500대, 자동차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 최대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마트는 현지화에 주력했다. 실제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점장을 비롯해 전 직원(300명)의 95% 이상을 베트남 현지인을 채용했다. 조선호텔 베이커리 출신 제빵 명장이 베트남에서 1년간 베트남 식성을 파악해 만든 빵도 선보인다. 노래 부르기를 즐기는 베트남인의 특성을 반영해 매장에 가라오케 코너도 마련했다. 또 전문 푸드홀과 키즈 스포츠 클럽, 잉글리시 클럽 등 테마형 편의시설을 함께 선보인다.

최광호 베트남 이마트 법인장은 “어린이용 오토바이 헬멧 기부나 장난감 도서관 건립 등 현지인들의 생활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벌여 지속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을 방침”이라며 “최근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과 시설을 기반으로 베트남의 유통 시장을 압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메르스에 떨고… IS테러에 놀라고… YS서거에 울었다

〈5월 20일~12월 24일〉 〈11월13일〉 〈11월22일〉

국내

1 메르스 사태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메르스는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12월 24일 0시부로 공식 종료될 때까지 218일 동안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메르스 사태로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정부의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2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거산(巨山)'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22일 오전 0시 22분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1993~1998년)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등의 업적을 남겼지만 집권 후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빛이 바랬다는 평가를 받았다.

3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월 5일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른쪽 광대부터 턱밑까지 자상을 입은 리퍼트 대사는 수술을 받고 무사히 회복했다. 당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우려됐지만 리퍼트 대사는 "같이 갑시다"라는 말로 우려를 불식시켰다.

4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기로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정치권에 들불처럼 번졌다.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이름의 교과서는 1년여 간의 집필 과정을 거쳐 2017년 3월 학교 현장에 투입된다.

5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간통행위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의 간통죄에 대해 위헌을 선고,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이 결정으로 수사·재판 중인 1770명이 처벌 위기를 면했다. 반면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혼 유책주의'는 계속 유지됐다.

6 최악의 식물국회

올 한해 국회는 정치도, 입법도 실종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지난 9일 오전 기준 올 한해 발의된 법안 수는 4436건으로 집계됐으나, 이중 실제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030건으로 가결률이 23.2%에 그칠 정도로 초라했다. 특히 지난 9월 17년 만에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은 여야 정쟁에 매몰돼 상임위 단계에서 수개월째 머물러 연내 타결이 어렵게 됐다.

7 사상최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6월 기준금리를 1.50%로 내렸다. 지난해 4월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올해까지 0.25%포인트씩 4차례 인하했다. 기준금리 1.50%는 사상 최저치다.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여파로 새해에는 기준금리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 롯데가 경영권 분쟁

두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그룹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올 7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취임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동해 반대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시작됐다. 지난 10월 신 전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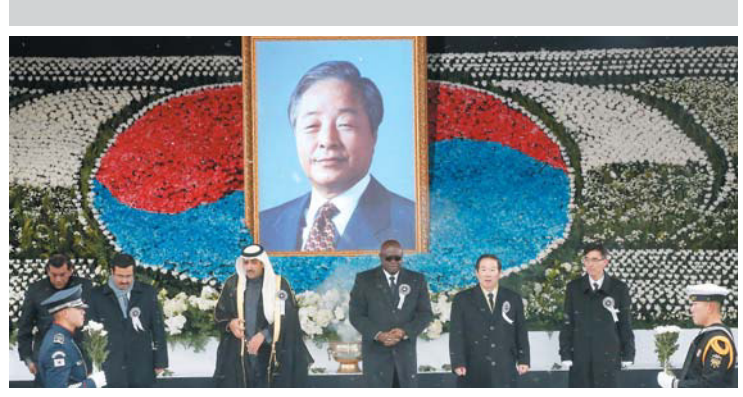
9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도래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뱅크'와 KT가 주도하는 'K뱅크'가 지난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국내 은행권에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신규은행업 인가가 떨어졌다. 이들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에 적극 진출할 전망이다.

10 '성완종 리스트' 파문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 등 정치인 8명 이름을 담은 일명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면서 파문이 번졌다. 이로 인해 이완구 당시 총리가 현직에서 물러나고 재판정에 서게 됐다.

2015년 을미년 한해가 저물어간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절망에 빠졌던 한국사회는 분위기를 추스리며 재도약에 나섰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다시 주춤했고, 성완종 사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론이 분열됐다. 박근혜 정부는 3년차를 맞아 4대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국회와의 불협화음으로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외부로부터의 도전도 거셌다. 중국의 굴기로 G2(미·중)간 정치·군사·경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해 동안 다방면에서 격변이 이어졌다. 이 와중에 발생한 파리테러는 전 세계를 테러 공포로 몰아넣었다. 〈편집자주〉



지난달 26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에 참석한 외교사절들.

지난 4월 규모 7.8의 강진이 네팔을 강타해 8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영권 분쟁에 롯데가 시끄러웠다. 신격호 총괄 회장(가운데)과 동주(왼쪽), 동빈

올해 중국은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계기가 된 전승절 열병식.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방기금금리를 0.25%~0.50%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6일 공식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뉴시스

국외

1 IS의 파리 테러

11월 13일 금요일 밤 이슬람국가(IS)의 테러리스트들이 무방비상태인 파리 시민들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 1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벨기에의 브뤼셀은 테러 공포로 한때 유령도시로 변했고, 미국도 IS에 동조하는 테러리스트로부터 총기 테러를 당했다. IS는 중동을 벗어나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2 유럽 난민사태

IS의 발호는 또한 전례없는 난민사태를 촉발시켰다. 지중해를 건너다 수많은 이가 목숨을 잃었지만, 150여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밀려들어왔다. EU는 난민 문제 처리를 두고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영국의 EU 탈퇴 문제도 불씨가 살아있다.

3 중국 군사·경제 굴기

중국은 올해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남중국해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 주도의 사상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켰고,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편입돼 '기축통화' 입지를 굳혔다.

4 일본의 전쟁가능국가화

일본은 지난 9월 안보관련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세계는 전후 질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G2시대로 접어들었다. 전쟁이 가능해진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미국은 군비 지출이라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의 무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5 미국 제로금리 종결

전 세계가 중국발 저성장 악재에 고전했지만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한 미국은 마침내 7년 간의 '제로 금리' 시대를 마무리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신흥국 경제에는 '슈퍼 달러'라는 악재까지 겹치게 됐다.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경기둔화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

6 동구·남미 좌파의 몰락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자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국가에서 복지 지출로 정권을 창출했던 좌파가 몰락하고, 우파가 부상했다. 동유럽에서도 폴란드, 크로아티아의 보수정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좌파의 몰락 현상이 두드러졌다.

7 사상 최대 합병의 해

중국발 저성장 악재에 글로벌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외형을 키우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올해 M&A 규모는 4조6000억 달러(약 5413조 원)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제약회사 화이자는 보톡스업체 앨러간을 1486억 달러에 사들여 세계 최대 제약사로 우뚝 섰다. 세계 최대 맥주회사 AB인베브는 업계 2위 영국 사브밀러를 1056억 달러에 인수했다.

8 파리기후협약 타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역사적인 국제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극빈국 등 거의 전 국가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9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파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일의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한 사실을 지난 9월 적발했다. 폴크스바겐은 '신뢰받는 독일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번 사태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급부상했다.

10 네팔 대지진, 전 세계 지진 공포

지난 4월 규모 7.8의 강진이 네팔을 강타해 8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파괴됐다. 관광수입에 의존해 온 네팔은 국가적 위기에 처해있다. 올해에는 네팔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 멕시코, 솔로몬제도, 일본, 그리스, 칠레, 콜롬비아, 대만, 미국 등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서 지진이 잇따르면서 전 세계가 대재앙의 공포에 휩싸였다.

한국관광공사

7개 지역공사와 '관광발전' 협약

한국관광공사는 서울관광마케팅,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7개 지역관광공사와 28일 오전 11시 롯데호텔서울 샤롯데스위트에서 한국관광발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각 공사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와 마케팅 ▲MICE 및 의료관광객 유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홍보와 마케팅 ▲관광수용태세와 인프라 개선 ▲기타 한국관광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지역관광공사가 없는 지역 중 8개 시·도(대구·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남) 관광 담당 국장도 참석해 내년도 기관별 핵심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6 중국인 한국관광의해' '2016-2018 한국방문의 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K스마일 캠페인' 등 대형 행사 연계 협력사업 추진도 함께 논의했다.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사장은 "향후 기관별 실무자 대상 공동 워크샵 개최,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체(Working Group)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국관광공사-지역관광공사-시·도 간 활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solanin@

쉐라톤그랜드인천

황홀한 카운트다운 파티

해넘이를 보기에 최적의 장소인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의 트렌디 바 비플랫(Bb)에서는 2015년 마지막 날인 31일 '황홀한 카운트다운 파티'를 선보인다. 파티에서는 캔들 라이트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샴페인 세트를 포함한 다양한 와인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특히, 스크린이 설치 생중계로 타종식을 관람할 수도 있다.

무제한 스파클링 와인과 스낵으로 구성된 세트 메뉴(3만 5000원)부터 페리에 주에 샴페인과 스페셜 스낵으로 구성된 특별 세트 메뉴(38만 5000원)까지 5가지 메뉴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문의: 032-835-1712~1713 /유현희 기자

스탠포드호텔

예림당과 '새해맞이 도서패키지'

스탠포드 호텔이 2016년 새해를 맞아 출판사 예림당이 함께 새해맞이 도서패키지 'Success Your life'를 출시했다.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은 포근한 객실에서 여유로운 새해 맞이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된 'Success Your life' ' 도서 패키지는 오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험할 수 있다.

패키지A는 편안하고 안락한 수면을 제공하는 일반 트윈 or 더블룸 1박과 조식 뷔페 2인, 인문,경제 경영 도서 2권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3만원이고, 패키지B와C는 주니어스위트 룸 1박과 조식뷔페 or 디너뷔페 행간출판사 도서 2권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각각 16만원, 19만5000원이다. 문의:02-6016-0001. /유현희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단계는 금물… 규칙적인 일 찾길

손재 여자 55년 2월 17일 양력 1시

Q 메트로 애독자입니다. 여러 중생들을 위해 인생의 멘토를 해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61세 2월 17일 양력 새벽 1시가 생일인 여자입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돌아간 이후 나이가 더 들어 수족을 못 쓸 때 비참한 노후를 안 보내려고 준비하는 것이 오매불망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은 저에게 최악으로 돈이 된다는 다단계 유혹에 빠져 기웃거리다가 1000만원을 빼앗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핸드폰을 잃어버려 모든 연락처를 망실했고 어제는 가방을 전철 안 선반에 올렸다가 분실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한심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A '화무는 십일 홍이요 권불 10년이라'했는데 10년이란 말이 들어 간 것은 오래가는 것은 하나도 없이 변할 수 있다는 말이며 역(易)에서 세월의 흐름을 대운(大運)이라 10년마다 오는 운이 있고 일 년마다 달력이 넘어가듯이 년운(年運)이 있지요. 손재님의 사주8자 원국에서도 귀문이 있어 현실에서 활동영역의 판단에 우려가 있는데 운에서도 겁재라는 운세에 닿았습니다. 겁재는 재물을 빼앗긴다는 의미이며 겁재시기에는 다단계나 사업에 손을 대면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시점인데 그것을 모르고 겁재시기에 일을 하다가 손재수와 망신수를 당하게 된 것이니 '호랑이는 피할 수 있어도 사주팔자는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다시 느끼게 되는군요.

재성(財星:재물)은 그 구성으로는 정재(正財)와 편재(偏財)가 있고 정재는 정규적인 노력에 의하여 들어오는 돈이나 직장을 말하며 편재는 정재 이외에 비정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나 사업을 말합니다. 귀하는 지난 36세 이후부터 2년 후인 2017년까지 사업을 하거나 다단계같이 불규칙적인 일로 뛰어 다니게 됩니다.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인하여 시간과 노력 수많은 사람들과 친인척을 찾아다니면서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 쓰도록 회원을 모집합니다. 물건을 팔 때야 돈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불규칙한 일에는 하향 길로 가고 있는 시기가 되므로 그런 일에 손을 대면 아무리 세상없는 노력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귀문살(鬼門殺:귀신이 들리듯 비정상상태)이 중중(重重)한데 상급자들이 '노후대책으로 다단계에 올 인하면 성공하여 귀하가 오매불망하는 노후대책이 해결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말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이며 지면상 다시 상담 신청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신점[神占] 운세

12월 29일 (음 11월 19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많은 것을 기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0년생 실력 이상의 일은 귀하에게 맞지 않습니다. 72년생 건강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8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소 49년생 더 이상은 잘 되지 않습니다. 61년생 말을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73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85년생 앞에 너무나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호랑이 50년생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62년생 가던 방향을 고집해야 합니다. 74년생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86년생 어려울수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집중하세요.

토끼 51년생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63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입니다. 75년생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자세를 가지세요. 87년생 부와 명예가 귀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 52년생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64년생 오늘은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길합니다. 76년생 마음이 흔들일 일이 있겠습니다. 88년생 현실적이면서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뱀 53년생 정신을 맑게 하세요. 65년생 너무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77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세요. 89년생 모험심이 생깁니다.

말 54년생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66년생 옛 동료를 만나게 되니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78년생 아직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90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양 55년생 참고 인내하면 노력의 결실이 있겠습니다. 67년생 주변에서 도우니 원대한 것을 이루겠습니다. 79년생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91년생 너무 거만하지 마세요.

원숭이 56년생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68년생 고민하던 이성 문제에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80년생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92년생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닭 57년생 늘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69년생 오래 전부터 만나고 싶어하던 귀인이 찾아옵니다. 81년생 삶을 좀 더 즐겁고 활기차게 살도록 하세요. 93년생 이성과의 다툼을 조심하세요.

개 58년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됩니다. 70년생 사치를 삼가 하세요. 82년생 게으름은 망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94년생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돼지 59년생 이성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71년생 바람끼는 절대로 안 됩니다. 83년생 주위사람에게 칭찬 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95년생 어려운 시기가 예상됩니다.

제작 | 그림자story www.grimzastory.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6	1	7	4	3	9	8	5	2
9	5	8	7	2	1	4	6	3
3	2	4	8	6	5	9	7	1
8	3	1	9	5	6	2	4	7
4	6	9	2	7	8	3	1	5
5	7	2	3	1	4	6	9	8
2	9	3	1	4	7	5	8	6
7	4	6	5	8	3	1	2	9
1	8	5	6	9	2	7	3	4

6	9	4	3	5	2	7	1	8
9	1	2	8	3	6	9	4	5
5	8	7	4	9	1	6	3	2
7	3	8	9	6	4	5	2	1
2	4	5	1	7	3	6	8	9
1	6	9	2	8	5	3	7	4
4	2	1	6	9	8	7	5	3
3	5	6	7	4	9	8	1	2
8	7	3	5	2	1	4	9	6

				9		7		
	4		5		3	1		
						5	8	6
5	7		3				9	
4				7				5
	3				6		4	7
3	2	4						
		8	7		1		6	
		7		3				

	3			6				7
	7	6			1			
1		5		3				
		1	6				7	
3			2		9			5
	5				3	6		
				9		4		2
			7			3	9	
6				5			1	

www.newsis.com

NEWS IS

뉴시스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300여명의 국내 기자와 AP·로이터·신화통신 등과 함께
지구촌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뉴시스의
10년, 100년을 위한
독자와의 약속

늘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 언론**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민완 언론**
약자의 편에 서는 **따뜻한 언론**
비리에 눈감지 않는 **강한 언론**
지구촌을 선도하는 **글로벌 언론**

공|감|언|론 뉴시스
NEWSIS

데뷔한지 15년… '풍선껌'은 새로운 도약

스타인터뷰 tvN 드라마 '풍선껌' **박 희 본**

박희본(32)은 자유분방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을 가둬두지 않아서다. 얼마 전 종영한 tvN 드라마 '풍선껌' 속 홍이슬과 180도 달랐다. '풍선껌'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처럼 지낸 두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로맨스 드라마다. 이동욱, 려원, 이종혁, 배종옥 등 선 굵은 배우들의 연기와 탄탄한 스토리는 '웰메이드(완성도 높은) 드라마'라는 수식어를 낳았다.

박희본이 연기한 홍이슬은 박리환(이동욱 분)을 향한 지독한 짝사랑으로 갈등을 유발했던 인물. 홍이슬은 풍요로운 환경을 갖췄지만 감정의 결핍을 겪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아한다고 솔직히 표현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저를 밀어내면 쿨하게 돌아서는 편이죠.(웃음)"

박희본은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사랑에 무지한 홍이슬을 연기했다. 리환(이동욱)을 향한 서툰 애정표현으로 시청자에 웃음을 안기다가도 절절한 짝사랑으로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했다.

"이슬이는 활달한 성격도 아니고 오로지 공부만 한 치과의사 잖아요. 패션감각도 없고요.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66사이즈까지 살을 찌웠어요. 그런데 드라마 상에서 마음고생을 해서인지 몰라도 오히려 살이 빠지더라고요.(웃음)"

박희본은 이번 작품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캐릭터에 자기 자신을 맞췄다. 차분한 성격까지 연기하려고 발성을 바꿨다. 눈동자의 시선처리까지 신경썼다.

데뷔 15년차이지만, 그녀는 이번 작품을 '새로운 도약'이라고 정의했다.

"그간 작품을 찍을 때마다 성장한 것 같다.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다. 연기자 선배님들에게 배운 것도 많았다. 내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는 걸 깨달았다. 그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도 있었지만요.(웃음)"

'풍선껌'은 쟁쟁한 배우들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아쉬움이 클 법도 한데 박희본은 이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장의 시청률보다 '다시 보고싶어지는 드라마'로 남는 게 좋다고 했다.

"현장 분위기만 보면 시청률 1위 드라마죠. 각자의 역할과 분량만 챙기는 것이 아닌 서로 대본을 봐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서로 공유하면서 촬영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현장이 또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아쉽고, 지금도 현장 분위기가 그리워요."

서른둘. 여자 연기자로서 적지 않은 나이이기에 조바심이 날 것 같지만, 박희본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다.

"연기할 때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간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풍선껌' 첫회 촬영이 어제 같은데 벌써 종영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30대나 20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웃음) 조바심내고 방황할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는 '왜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나', '나는 연기가 적성에 맞지 않나보다', '다른 걸 해볼까'등 많을 고민을 했죠. 당시 윤성호 감독님과 함께 작업하면서 연기가 즐겁다는 걸 알게 됐죠.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소화할까는 고민할 때 행복해요. 저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죠."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출연하는 작품마다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그의 바람은 대중에게 '이런 역할도 소화해'하고 매 번 놀라움을 선사하는 것이다.

"힘든 시기가 찾아와도 버텨내면 결국 좋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조금 느리면 어때요.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2016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시청자 앞에 설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사진/손진영 기자 son@

"새 앨범 작업은 일기와 같은 치유의 과정이죠"

신비롭고 서정적인 감성의 '음악 여신'
작은 섬에서 얻은 영감, 고스란히 담겨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양한 언어로 녹음

7년 만에 새 앨범 낸 엔야

엔야는 그동안 신비롭고 서정적인 감성의 음악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아온 아일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다. '천상의 목소리' '아일랜드의 음악 여신'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그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8000만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했으며 그래미 상도 네 차례나 수상했다.

지난달 7년 만에 새 앨범 '다크 스카이 아일랜드(Dark Sky Island)'를 발표한 엔야를 최근 서면 인터뷰로 만났다. 그는 "그동안 일은 손도 대지 않았다"며 "일상을 되찾는 과정"이었다고 공백기 동안의 근황을 전했다.

새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초의 일이었다. 휴식을 취하면서 보고 겪고 들은 순간과 풍경, 신비로운 이야기로 영감을 가득 얻은 상태였다. 특히 영국 채널 제도에 있는 작은 섬 사크 섬에서 받은 영감이 새 앨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크 섬은 완벽한

밤하늘을 위해 차도 다니지 않고 불도 켜지 않는 '국제밤하늘보호섬'이다. 밤이 되면 수많은 별들만이 빛나는 이곳에서 느낀 것들이 이번 앨범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러나 영감을 음악으로 담아내는데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저는 영감이 왔을 때 곧바로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영감을 음악으로 담아내기에는 벅차거든요. 제가 가진 수많은 영감 중 오래 기억되는 것들을 가만히 떠올리면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치 일기를 쓰는 것 같은 치유의 과정이죠."

엔야는 '다크 스카이 아일랜드'를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게일어와 라틴어 등 다양한 언어로 녹음했기 때문이다. 처음 공개한 노래 '오리노코 플로우(Orinoco Flow)'는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담은 곡이다. 엔야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흥분을 표현한 노래"라며 "돌아갈 집이 어디든 여행을 통해 얻은 향수와 기억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앨범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로는 '이븐 인 더 셰도우즈(Even In The Shadows)'를 꼽았다. "감정의 여정을 담은 곡이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실패한 사랑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담았어요." 엔야는 "노래를 통해 치유를 이야기하고 싶다"며 "좌절하지 않고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오랜만의 컴백인 만큼 기대 못지않게 두려움도 크다. 엔야는 "긴 공백 뒤에 낸 앨범이라 내 음악을 들어주던 사람들이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발매 이후의 반응을 보니 여전히 내 음악이 매력 있게 다가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

TV 하이라이트

2015 MBC 방송연예대상 2015 ENTERTAINMENT AWARDS

올해의 커플상은 누구?

◆ MBC '2015 방송연예대상'

오후 8시55분

한해 동안 MBC 예능을 빛낸 별들의 축제가 펼쳐진다.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의 오민석·강예원, 곽시양·김소연, 육성재·조이, '일밤-진짜 사나이'의 김영철·정겨운,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모르모트' 권해봄 PD·초아가 베스트 커플상 후보에 올라 경쟁한다. 방송인 김성주와 김구라, 배우 한채아가 MC로 호흡을 맞춘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00 MBC 뉴스	05:00 SBS 5 뉴스			05:30 피라냐 2	05:00 레이드 2
05:10 내 고향 스페셜		05:10 네트워크특선 어부의 만찬	05:10 굿모닝 510-사람 사는 세상				
06:00 KBS 뉴스광장	06:00 2TV 아침 1부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00 모닝와이드 (1~3부)	06:00 힐링의 품격 (재)	06:00 비밀독서단 (재)	06:40 셔터 아일랜드	
07:50 인간극장	07:00 2TV 아침 2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00 쿵푸 공룡수호대 (재)			07:50 정무문:100대 1의 전설
08:25 아침마당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7:50 내일도 승리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7:30 JTBC NEWS 아침 &	07:20 응답하라 1994 (재)		
09:30 KBS 뉴스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10 좋은아침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9:40 여유만만	09:30 MBC 생활뉴스	10:00 SBS 뉴스	09:00 김제동의 톡투유 (재)	09:10 응답하라 1994 (재)	09:10 성범죄수사대:SVU	
10:55 별별가족 (재)	10:40 지구촌 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0:30 SBS 생활경제	10:20 비정상회담 (재)		시즌16 (재)	10:00 판타스틱4
11 00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11:00 1 대 100 (재)		11:10 마녀의 성 (재)	11:5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0:40 문제적 남자 (재)		
11:55 안녕 우리말 (재)		11:00 최고의 연인 (재)	11:50 SBS 12뉴스				
12:00 KBS 뉴스 12	12:00 사람과 사람들 (재)	12:00 MBC 정오뉴스		13:15 마리와 나 (재)	12:10 명단공개 (재)	12:00 도둑들	12:10 시드니 화이트
13:00 명품역사관 역사저널 그날 (재)	13:00 생생정보 스페셜	12:20 TV속의 TV	12:45 불타는 청춘 (재)		13:10 응답하라 1988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4:00 KBS 뉴스타임	13:20 문화사색		14:35 JTBC 뉴스 현장			
14:00 우리말 겨루기 (재)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4:05 내꺼야 폴록 (재)	14:00 영재발굴단 (재)			14:50 표적	14:30 늑대아이
14:55 안녕 우리말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4:30 꾸러기 식사교실	15:00 3시, 뉴스브리핑	15:50 4시 사건 반장			
15:00 특집 메마른 땅 버려지는 물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5:00 MBC 뉴스	16:00 슈퍼레이서 엔지		16:50 어쩌다 어른 (재)		
16:00 오늘의 경제	16:00 TV 유치원	15:10 똑?똑! 키즈스쿨					
16:10 특집 다큐 미래의 축산 (재)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5:55 꼬마돌 도도	17: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10 5시 정치부 회의		17:00 미션 임파서블 3	17:00 배트맨 비긴즈
17:00 KBS 뉴스 5	16:40 동물의 세계	16:25 아름다운 당신 (재)	17:30 SBS 뉴스 퍼레이드				
17:20 시사진단	17:00 VJ 특공대(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8:00 6시 내고향	18:00 글로벌24	18:10 송년특집 생방송 오늘 저녁	18:05 생방송 투데이	18: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8:10 문제적 남자 (재)		
19:00 KBS 뉴스 7	18:30 2TV 생생정보	19:15 최고의 연인	19:20 마녀의 성	19:55 JTBC 뉴스룸	19:40 명단공개 (재)	19:30 스타트렉:더 비기닝	19:50 라스트 스탠드
19:30 송년 기획 이웃집 찰스	19:50 다 잘될 거야	19:55 MBC 뉴스데스크	20:00 SBS 8 뉴스		20:40 콩트앤더시티 (재)		
20:25 우리 집 꿀단지	20: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20:55 2015 MBC 방송연예대상	20:55 스타!킹		21:40 집밥 백선생		
21:00 KBS 뉴스 9	20:55 1 대 100	1부		21:30 최고의 사랑		22:00 퍼스트 어벤져	22:00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
22:00 시사기획 창		22:35 2015 MBC 방송연예대상	22:00 육룡이 나르샤	22:5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23:00 응답하라 1988 (재)		
23:00 KBS 뉴스라인	22:00 오 마이 비너스	2부	23:15 불타는 청춘				
23: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23:10 우리동네 예체능	24:25 MBC 뉴스 24			24:50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재)	24:20 300	
24:35 독립영화관 〈경의선〉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4:35 라디오스타 스페셜	24:35 나이트라인	24:25 아는 형님 (재)			24:40 이웃사람

29일(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자본창업, 수익성 확보가 먼저

이상헌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최근 소자본 창업시장에 뛰어드는 창업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인구 5명 중 1명이 소자본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 후 제2의 인생으로 소자본 창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시장 불황과 과다경쟁으로 매장의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이럴 때일수록 예비 창업자는 정공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 리스크(위험부담)를 줄이고, 수익을 확실하게 확보한 아이템을 선정해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소자본창업일수록 위험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익성이 높은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필수다.

식재료 로스율이 높으면 위험부담도 커진다. 로스율은 유통기한이 지나 제품을 폐기하는 확률을 의미한다. 명태요리 전문 브랜드 맵꼬만명태는 식재료의 로스율이 거의 없다. 맵고만명태가 로스율을 낮출 수 있는 이유는 주재료가 명태이기 때문이다. 명태는 사계절 내내 수요와 공급이 일정한 아이템인 데다 맵고만명태가 사용하는 황코다리는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명태만으로 찜, 탕, 조림 등 다양한 요리를 간단한 조리과정으로 선보일 수 있어 창업 경험이 없는 점주의 부담을 덜어준다.

프리미엄 한식요리 '니드맘밥'도 대표적인 소자본 창업아이템이다. 15평의 소규모 매장에 20석에 불과한 좌석을 구비했지만, 하루 평균 200여명 이상의 손님이 매장을 찾는다. 니드맘밥의 성공 비결은 맛과 시스템이다. 국내 최고 미질의 쌀을 공수, 매장에서 직접 즉석정미기로 쌀을 정미하고, 전통 방식으로 구현한 가마솥으로 밥을 짓는다. 게다가 데이터 네트워크가 탑재된 식권발매기를 사용해 자동 주문 시스템으로 인건비를 절감했다.

'생생돈까스'는 국내 돈까스 브랜드 중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생생돈까스를 맛본 누적고객은 약 5700만명이 넘는다.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생생돈까스를 경험한 셈이다. 생생돈까스가 지난 12년간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에서 이름난 먹거리를 뛰어넘어 깨끗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고수한 데 있다. 브랜드명에 걸맞은 건강한 맛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 인공조미료를 최소화한 것도 인기 요인이다.

세탁전문 브랜드 '월드크리닝'은 소자본 창업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창업비용의 거품을 없애고 창업 모델을 다양화했다. 월드크리닝은 편의점, 론드리숍, 코인론드리숍 등으로 창업모델을 세분화해 창업자의 경제력에 따라 창업을 지원한다. 우수한 친환경 기술력과 저렴한 세탁비, 체계적인 교육도 월드크리닝이 가진 장점이다. 월드크리닝은 일반 세탁소와 달리 카본(숯)필터 시스템을 활용해 용제 속 세균까지 잡아낸다. 아울러 용제증류시스템을 설치해 용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세정액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월드크리닝은 1인 가구와 핵가족의 증가로 수요가 확실한 소자본 창업 아이템 중 하나다.

새는 돈만 막아도 성공창업으로 다가가는 길이 조금은 가까워진다. 창업 아이템만 잘 살펴도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 또 꾸준한 수요가 창출될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소자본창업이어서 적게 투자했다고 적게 벌라는 법은 없다. 적게 투자하고 많이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창업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社說

일본 총리의 사죄 환영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최대의 난제였던 위안부 문제가 마침내 타결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었다. 그토록 어려워 보이던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무엇보다 일본이 군부의 관여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군부의 개입 사실을 인정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단순히 인신매매 문제였다고 주장해 왔다. 심지어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을 가리켜 매춘부라고 매도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주장까지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기시다 외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라고 명확하게 인정했다.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일본이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환영한다. 본지가 이미 지적한 대로(2015년 12월 28일자 사설 참조) 일본이 난제해결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며 일본의 사과와 해결방안을 수용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책임에 대한 애매함이 다소 남아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도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근본적인 태도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지원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니,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 하나가 사실상 제거됐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돼 있는 소녀상도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정신을 살려 독도 문제를 비롯해 강제징용자의 유골송환 등 다른 현안들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소상공인도 변화할 때

기자 수첩
김 성 현
〈라이프&유통부〉

올 한해 유독 어려움을 호소한 유통업계는 큰 결심을 했다. 변화였다. 특히 오프라인 채널은 온라인 채널의 기세에 밀리지 않기 위해 '옴니채널'이라는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미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설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집 앞에서 파는 생수 하나도 온라인 주문을 통해 그날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골목상점의 존재 의미 자체가 희미해졌다.

지난 23일 소상공연연합회는 '중소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선언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 처리다. 그간 정부는 'SSM법 제정' 등을 통해 중소상인을 지원해 왔으나 사실상 그 효과는 미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일이 오히려 중소상인의 매출마저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비자들이 의무휴일에는 쇼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업계는 "이제 소상공인도 변화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도 새로운 유통망 설립 지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 이상 '골목', '전통' 이라는 단어로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없다. 소비자의 편의가 극에 달할 정도로 유통업은 발달했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자발적인 내수경제 살리기 운동인 '으랏차차 소상공인 행복세일', 소상공인의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 올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다. 다만 전문적인 기획·운영부서가 없는 소상공인들은 항상 한계에 부딪힌다.

으랏차차 소상공인 행복세일에 참여한 한 중소상인은 "체계화된 조직과 전문부서가 없는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달라거나 대기업을 제재하라는 것은 아니다. 자체적인 변화의 시도는 하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가 많다. 우리들의 몸부림을 보고 정부가 진정 어떻게 소상공인을 도와야 할지 자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us@metroseoul.co.kr

경찰의 소지품 수색 거부해도 될까

생활법률

대학생인 A씨는 학원에 가던 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당했다. 갑작스런 제지에 놀란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그를 강제로 인근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했다. 다행이 지나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연행은 피했지만 찜찜한 기분을 피할 수 없다. A씨는 경찰이 갑작스런 불심검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을까.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인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은 질문함에 있어서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다. 또 심문하는 동안 수갑을 채우는 강제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해당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동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의사에 반한 동행도 강요할 수 없다.

판례도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지품검사의 경우 의복 또는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흉기소지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다. 소지품의 내용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적이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 과장급 직위 승진 ▲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지역전통문화과장 조상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박병주 ▲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장 이애령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강태서 ▲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실 예술정책과장 김정훈 ▲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실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신은향 ▲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정책관실 박물관정책과장 김근호 ▲ 체육관광정책실 체육정책관실 체육진흥과장 이해돈 ▲ 체육관광정책실 체육정책관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섭 ▲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장 강정원 ▲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실 국제관광과장 윤양수 ▲ 체육관광정책실 관광레저정책관실 관광레저기반과장 박형동 ▲ 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장 안상근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장 김재숙 ▲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박창현 ▲ 한국정책방송원 과장직위 김정호 ▲ 한국정책방송원 과장직위 서상면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교류과장 장사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파견 최상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파견 한영흡 ▲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장 배양희

◆산림청 ▲ 남부지방산림청장 고기연

◆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승진 ▲김헌수 ▲서보신 ▲양진모 ▲왕수복 ◇ 전무 ▲김대원 ▲김언수 ▲김형정 ▲박동일 ▲박두일 ▲배형근 ▲이영택 ▲이종수 ▲임태원 ▲탁영덕 ◇ 상무 ▲강병욱 ▲김동석 ▲김상대 ▲김선섭 ▲김천성 ▲김철환 ▲김현중 ▲류성원 ▲박병철 ▲박채영 ▲서석교 ▲서정국 ▲성인환 ▲손경수 ▲손동인 ▲엄태신 ▲오세환 ▲오일석 ▲유원하 ▲윤석현 ▲이경재 ▲이규오 ▲임승표 ▲임재홍 ▲지태수 ▲허정환 ◇ 이사 ▲강순영 ▲금우연 ▲김계수 ▲김기완 ▲김대성 ▲김대엽 ▲김명규 ▲김민수▲김봉수 ▲김익수 ▲김정철 ▲김종윤 ▲김흥수 ▲류창승 ▲맹하영 ▲박동식 ▲박진석 ▲백승권 ▲백지홍 ▲백철승 ▲송근수 ▲안병주 ▲유근혁 ▲이강석 ▲이기행 ▲이덕기 ▲이민호 ▲이병훈 ▲이용희 ▲이재운 ▲이재철 ▲이종훈 ▲이진주 ▲이호일 ▲이희찬 ▲임경택 ▲장덕상 ▲전범준 ▲전제록 ▲정상빈 ▲정완덕 ▲정찬복 ▲조임상 ▲최규헌 ▲추교웅 ▲홍석범 ◇ 이사대우 ▲강기문 ▲강점기 ▲고기업 ▲권병칠 ▲권순석 ▲김광익 ▲김동섭 ▲김상열 ▲김세훈 ▲김영국 ▲김윤주 ▲김인태 ▲김제영 ▲김태성▲김형영 ▲박영식 ▲배현주 ▲서경주 ▲성백준 ▲송기봉 ▲송성호 ▲송재민 ▲신승호 ▲신승환 ▲안현주 ▲양석호 ▲오인원 ▲원광민 ▲유지한 ▲유진환 ▲윤정일 ▲윤창섭 ▲이대교 ▲이석재 ▲이시훈 ▲이정규 ▲이종일 ▲이주열 ▲장현규 ▲정현철 ▲조재경 ▲진욱 ▲최의용 ▲최재호 ▲최치환 ▲허왕도 ▲허준무 ◇ 수석연구위원 ▲박종술 ◇ 연구위원 ▲백순권 ▲오만주 ▲전병욱(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부사장 ▲박광식 ◇ 전무 ▲권혁호 ▲박수남 ▲서춘관 ▲오세장 ▲이순남 ◇ 상무 ▲공문성 ▲김선만 ▲민철규 ▲변동문 ▲심국현 ▲윤석주 ▲윤승규 ▲조상현 ▲조진현 ◇ 이사 ▲강석만 ▲김득호 ▲김성진 ▲김영권 ▲김의성 ▲김종필 ▲김진수 ▲류현우 ▲마태락 ▲박노홍 ▲송민수 ▲이광구 ▲이성규 ▲이우기 ▲이한응 ▲임민택 ▲정순원 ▲조영상 ▲최연홍 ▲홍경화 ◇ 이사대우 ▲곽용선 ▲김광오 ▲김명실 ▲김선한 ▲김영기 ▲김재룡 ▲박규철 ▲박명호 ▲박희동 ▲오용진 ▲이성복 ▲이수환 ▲정재천 ▲조영곤 ▲최용만 ▲최의순 ▲최진기 ▲태원섭 △현대모비스 ◇ 부사장 ▲이영진 ◇ 전무 ▲김기년 ◇ 상무 ▲김호 ▲문창곤 ▲신동우 ▲정수경 ▲조광래 ▲한의창 ◇ 이사 ▲고동록 ▲김성익 ▲문동남 ▲상경필 ▲서정범 ▲손찬모 ▲우경섭 ▲조규량 ◇ 이사대우 ▲김연근 ▲김영화 ▲나선근 ▲문경호 ▲박용환 ▲박종원 ▲이근수 ▲이병훈 ▲이정표 ▲정창재 ▲정하승 ▲최상유 △현대위아 ◇ 전무 ▲곽성수 ◇ 상무 ▲이봉우 ◇ 이사 ▲류성룡 ▲박동호 ▲박창섭 ▲성인용 ▲엄도영 ▲최동렬 ◇ 이사대우 ▲남기현 ▲정연태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 상무 ▲이원희 △현대파워텍 ◇ 상무 ▲김홍민 ▲라경실 ▲이광윤 ◇ 이사 ▲차삼호 ◇ 이사대우 ▲권혁빈 △현대다이모스 ◇ 부사장 ▲김기준 ◇ 전무 ▲박영수 ◇ 상무 ▲박재원 ◇ 이사 ▲김타곤 ▲신영석 ◇ 이사대우 ▲성태희 ▲이영진 ▲조신래 ▲황장희 △현대엠시트 ◇ 이사 ▲이정현 △현대케피코 ◇ 상무 ▲임성호◇ 이사 ▲이상조 △현대오트론 ◇ 상무 ▲이동현 ▲장재호 ◇ 이사 ▲박동선 △현대파텍스 ◇ 상무 ▲김진원 △현대제철 ◇ 전무 ▲김기성 ▲한종만 ◇ 상무 ▲김학연 ▲문병태 ▲박종성 ▲유기종 ▲이상원 ▲한영모 ◇ 이사 ▲김경석 ▲김성주 ▲박병익 ▲임병직 ▲최주태 ◇ 이사대우 ▲고향진 ▲김정한 ▲김현수 ▲박철민 ▲이광호 ▲이기표 ▲이대형 ▲이보룡 ▲이선진 △현대종합특수강 ◇ 이사 ▲최경탁 △현대캐피탈 ◇ 상무 ▲고상민 ▲이교창 ▲최성원 ◇ 이사 ▲김훈태 ▲이주연 ◇ 이사대우 ▲고석빈 ▲김성준 ▲도문주 ▲신동림 ▲우경원 ▲홍근배 △현대카드 ◇ 이사 ▲전영일 ◇ 이사대우 ▲조창현 △현대라이프생명보험 ◇ 상무 ▲백연웅 ▲전길호 ◇ 이사대우 ▲공봉환 ▲황기욱 △HMC투자증권 ◇ 전무 ▲한석 △현대건설 ◇ 전무 ▲송중호 ▲유승하 ▲전익수 ◇ 상무 ▲강용희 ▲곽병해 ▲김대근 ▲김택규 ▲류칠희 ▲박찬복 ▲손준 ▲송영구 ▲임종호 ▲진상화 ▲최원호 ▲황준하 ◇ 상무보A ▲곽모원 ▲김태욱 ▲박용명 ▲박철수 ▲이수영 ▲이태영 ▲차승용 ▲채병석 ◇ 상무보B ▲김교태 ▲김상민 ▲김태희 ▲노경석 ▲이승원 ▲이승태 ▲이용 ▲이인기 ▲정준택 ▲진한무 ▲최영 ▲홍순웅 ▲홍의 △현대엔지니어링 ◇ 전무 ▲김진원 ▲박찬우 ▲이재환 ▲임용진 ◇ 상무 ▲이승철 ▲정욱 ◇ 상무보A ▲김영두 ▲문일현 ▲박정윤 ▲안재열 ▲이창재 ▲임관섭 ▲임성원 ◇ 상무보B ▲김민현 ▲손명건 ▲심범섭 ▲안우근 ▲임호근 ▲한훈호△현대종합설계 ◇ 상무보B ▲이광재 △ 현대글로비스 ◇ 상무 ▲전금배 ▲주민 ◇ 이사 ▲유종수 ▲이홍기 ▲정석봉 ◇ 이사대우 ▲김창기 ▲박태영 ▲신성만 △현대로템 ◇ 전무 ▲최용균 ◇ 상무 ▲채경수 ◇ 이사대우 ▲안경수 ▲최동현 △ 현대오토에버 ◇ 상무 ▲김성수 ▲한영국 ◇ 이사 ▲조강식 ◇ 이사대우 ▲권동복 ▲김종진 △이노션 ◇ 이사 ▲김종필 △현대엠엔소프트 ◇ 이사 ▲우병근 ◇ 이사대우 ▲이진동

◆롯데그룹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장선욱 ▲한국에스티엘 대표이사 상무 유형주 ▲롯데멤버스 대표이사 상무 강승하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대홍기획 대표이사 내정 전무 이갑

◇승진 △롯데쇼핑 ▲전무 장호주, 노윤철, 김영균, 강종현 ▲상무 장준, 류민열, 조영제, 우길조, 장대식, 윤주경, 조셉 분타란(Joseph Buntaran), 정원호, 이관로, 김찬수, 김태완, 기원규, 황용석, 차우철 ▲상무보A 이선서일영 ▲ 상무보 정진욱

◆교보증권 ◇ 승진 〈전무〉 ▲ WM사업부문 박성진 ▲ 경영지원실 조옥래 〈상무〉 ▲ FICC본부 겸 주식파생본부 강은규 〈임원보〉 ▲ CRO 한수동 ▲ 기획실 이종계 ▲ 리서치센터 김영준 ▲ 구조화금융본부 담당 최원일 ◇ 신임 〈본부장〉 ▲ 고객자산운용본부 안효진 ◇ 전보 〈본부장〉 ▲ 금융상품영업본부 김병호 ▲ 법인영업본부 송의진

◆메리츠종금증권 ◇ 승진〈부사장〉 ▲ 김기형 〈전무〉 ▲ 김수광 ▲ 정연일 〈상무〉 ▲ 박관표 ▲ 안성호 ◇ 신규선임 〈상무보〉 ▲ Multi Strategy 운용팀장 노영진 ▲ IB사업담당 겸 유동화금융팀장 이세훈 ▲ 프로젝트금융1팀장 이호범 ▲ 특수투자금융팀장 손규성 ▲ 심사분석1팀장 백득균

◆메리츠화재 〈승진〉 ◇ 부사장 ▲ 이경수 ◇ 전무▲ 박용주 ▲ 천병호 ▲ 권대영 ◇ 상무 ▲ 김종민 〈신규선임〉 ◇ 부사장 ▲ 부동산운용실장 인채권 ◇ 상무보 ▲ 경남본부장 정태문 ▲ Agency2본부장 장장길

◆토러스투자증권 ◇ 승진 ▲ 준법감시인 김명배(상무)

◆광동제약 ◇ 승진 ▲ 약국사업본부 전무이사 노병두 ▲ 의약품개발본부 전무이사 안주훈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신태용 감독(앞줄 왼쪽 두 번째)이 이끄는 올림픽 남자 축구 대표팀이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용 호는 내달 4일과 7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와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올림픽 본선 티켓이 걸려 있는 2015 아시아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 나선다. /연합뉴스

신태용 "방심, 1%도 허용 않겠다"

올림픽 대표팀 UAE 출국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이 8회 연속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을 위해 중동으로 출격했다.

대표팀은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났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축구 예선전인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2016년 1월 12~30일·카타르 도하)에 대비하는 최종 모의고사를 치르기 위해서다.

이날 출국한 올림픽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다음달 4일 오후 11시 UAE의 두바이 알샤밥 경기장에서 UAE 올림픽 대표팀과 1차 평가전을 치른다. 7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올림픽 대표팀과 2차 평가전에 나선다.

이어 8일 UAE 두바이를 떠나 카타르 도하에 도착해 리우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티켓의 향방을 결정하는 2016 AFC U-23 챔피언십 최종 준비에 나선다.

AFC U-23 챔피언십은 16개팀이 4팀씩 4개조로 나뉘어 치러진다. 리우 올림픽 티켓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3위 이내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디펜딩 챔피언' 이라크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예멘 등과 C조에 속해 있다.

신태용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U-23 챔프 앞두고 두차례 평가전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담금질

이날 신태용 감독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방심' 이라는 말은 결승전에 올라간 뒤 생각할 단어"라며 "대회를 치르는 동안에는 절대 1%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어 "두 차례 평가전은 실전에서 가동할 전술을 시험해보는 자리"라며 "조별리그 상대팀들도 우리를 분석하고 나설 예정이어서 모든 전력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지 기후와 선수들의 컨디션을 보고 나서 평가전에 나설 선수들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태용호는 AFC U-23 챔피언십에 대비해 4-4-2 전술을 기본으로 4-2-3-1 전술을 함께 가동해왔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요원인 김현(제주)과 황희찬(잘츠부르크)의 득점포와 중원의 핵심 역할을 떠안은 권창훈(수원)의 활약이 절실하다.

황희찬은 "국내 소집훈련에서는 함께 훈련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대표팀 형들과 연락을 계속하면서 대회 준비 상황을 전해 들었다"며 "두바이 전지훈련에서 준비를 잘해서 대회를 잘 치르겠다"고 말했다. 권창훈은 "선수들 모두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대회를 준비해왔다. 선수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우승을 노리고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태용호는 2016 AFC U-23 챔피언십에서 한국시간으로 내년 1월 14일 오전 1시30분 우즈베키스탄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갖는다. 이어 예멘(1월 16일 22시 30분), 이라크(1월 20일 1시30분)와 차례로 2, 3차전을 치른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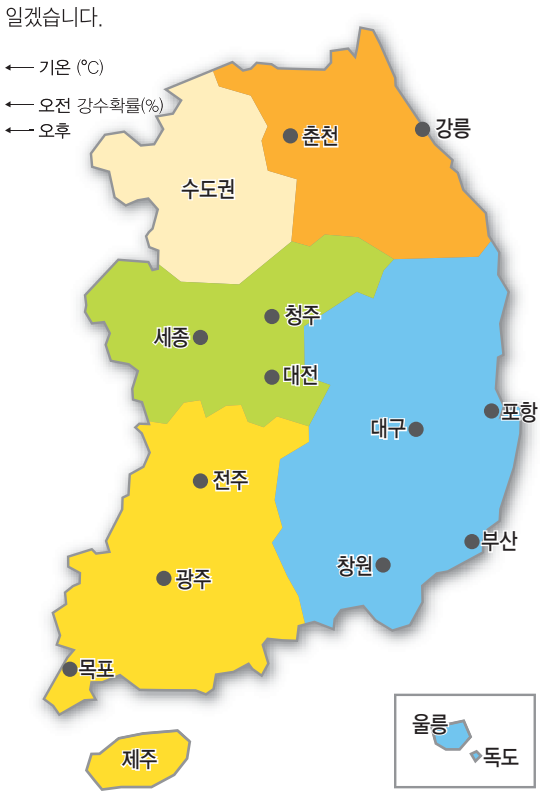
해뜸/07:46 | 해짐/17:22

12월 29일 화요일 (음력 11월 19일)

전국 대체로 맑음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m로 일겠습니다.

	기온(℃)	오전 강수확률(%)	오후
춘천	-10/1	10	10
강릉	-3/7	0	10
세종	-7/3	10	10
대전	-5/5	10	10
청주	-6/3	10	10
광주	-2/7	10	10
전주	-4/6	10	10
목포	-1/5	10	10
제주	4/8	20	20
대구	-3/6	0	10
창원	-2/8	0	0
포항	0/7	0	10
부산	-1/8	0	0
울릉	0/5	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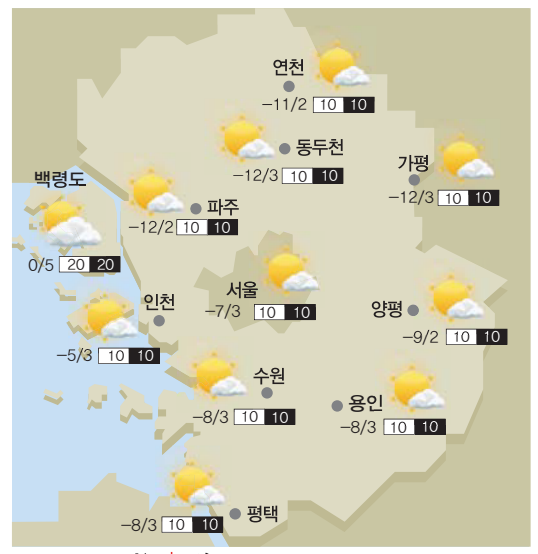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3~-7℃

체감온도	
피부질환 가능지수	
감기 가능지수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밀물과 썰물

지역	밀물	썰물
부산	10:48/23:03	04:27/16:44
인천	07:09/19:33	01:22/13:22
울산	09:52/22:24	03:44/15:52
군산	05:23/17:52	00:17/12:12
목포	04:21/17:02	09:38/22:1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박인비, LPGA 10대 뉴스서 '찜찜한' 5위

커리어그랜드슬램, 에비앙 '옥에 티'
1위엔 솔하임컵 '컨시드 논란' 올라

박인비(27·KB금융그룹·사진)의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이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10대 뉴스 5위에 올랐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28일(한국시간) 올해 LPGA 10대 뉴스를 선정해 이 같이 발표했다. 나비스코 챔피언십, LPGA 챔피언십, US오픈을 석권한 바 있는 박인비는 지난 8월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LPGA 역사상 7번째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그러나 골프채널은 박인비의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 뉴스의 제목을 '박인비의 그랜드 슬램 논란'으로 달았다. 여자골프 메이저 대회가 2013년부터 5개로 늘어난 만큼 이를 모두 우승해야 커리어 그랜드 슬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LPGA 투어에서는 공식적으로 박인비의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을 인정했다. 5번째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까지 우승하면 '슈퍼 커리어 그랜드 슬램'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골프채널과 AP통신 등은 에비앙 챔피언십까지 우승해야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인비는 2012년에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지만 당시 그 대회는 메이저가 아니었다.

LPGA 10대 뉴스 1위에 오른 뉴스는 미국과 유럽의 여자골프 대항전인 솔하임컵에서 벌어진 '컨시드 논란'이었다. 이는 솔하임컵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한 재미동포 앨리슨 리가 상대로부터 컨시드를 받았다고 판단해 공을 집어 들면서 시작된 논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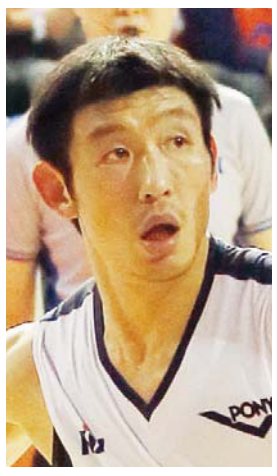
당시 유럽 대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은 '컨시드를 준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 앨리슨 리가 벌타를 받았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컨시드를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꼼수'였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뤘다. 페테르센은 스포츠맨십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들었다. 결국 미국 대표팀은 이후 경기부터 대반격에 나서 올해 솔하임컵을 역전 우승으로 장식했다.

2위와 3위는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차지했다. 최연소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것이 2위,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것이 3위로 평가를 받았다. 4위는 솔하임컵에서 미국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저리나 필러의 퍼트였다. 박인비와 리디아 고가 벌인 세계 랭킹 1위 경쟁은 10위에 올랐다.

/장병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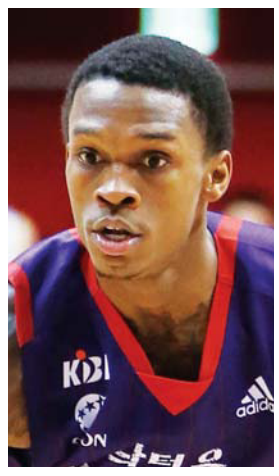
"올 시즌엔 내가 포인트 가드 No.1"

양동근·김선형·조 잭슨 3파전
양-풍부한 경험… 경기 운영 탁월
김-3점슛 성공률 1위 '해결사' 톡톡
조-화려한 기술… 헤인즈 공백 무색



울산 모비스의 양동근

서울 SK의 김선형



고양 오리온의 조 잭슨

올해부터 프로농구에 외국인 선수장·단신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리그에서 내로라하는 포인트 가드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울산 모비스의 양동근(34·181㎝), 서울 SK의 김선형(27·187㎝), 고양 오리온의 조 잭슨(23·180㎝)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세 선수는 최근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다. 양동근은 국가대표 차출로 1라운드에 뛰지 못했다. 김선형도 KBL로부터 개막 후 2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코트에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잭슨은 같은 팀 애런 헤인즈에 밀려 출전 시간이 부족했다.

김선형은 지난달 21일에 복귀했다. 잭슨 역시 헤인즈의 부상으로 출전 시간이 늘어났다. 팬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이 세 명의 '농구 쇼'에 집중됐다.

양동근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다. 문태영,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팀을 떠났음에도 모비스가 여전히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양동근의 역할이 크다.

김선형은 지난 시즌까지 외곽슛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번 시즌 3점슛 성공률 54.2%로 1위를 달릴 정도로 일취월장했다. 또한 김선형이 돌아온 이후 SK는 속공 횟수가 크게 증가하며 상위권 팀들도 쉽게 보지 못하는 팀으로 변모했다.

잭슨은 최근 가장 '핫'한 선수다. 지난 25일 SK 김선형과 맞대결에서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이며 16점, 11어시스트, 6리바운드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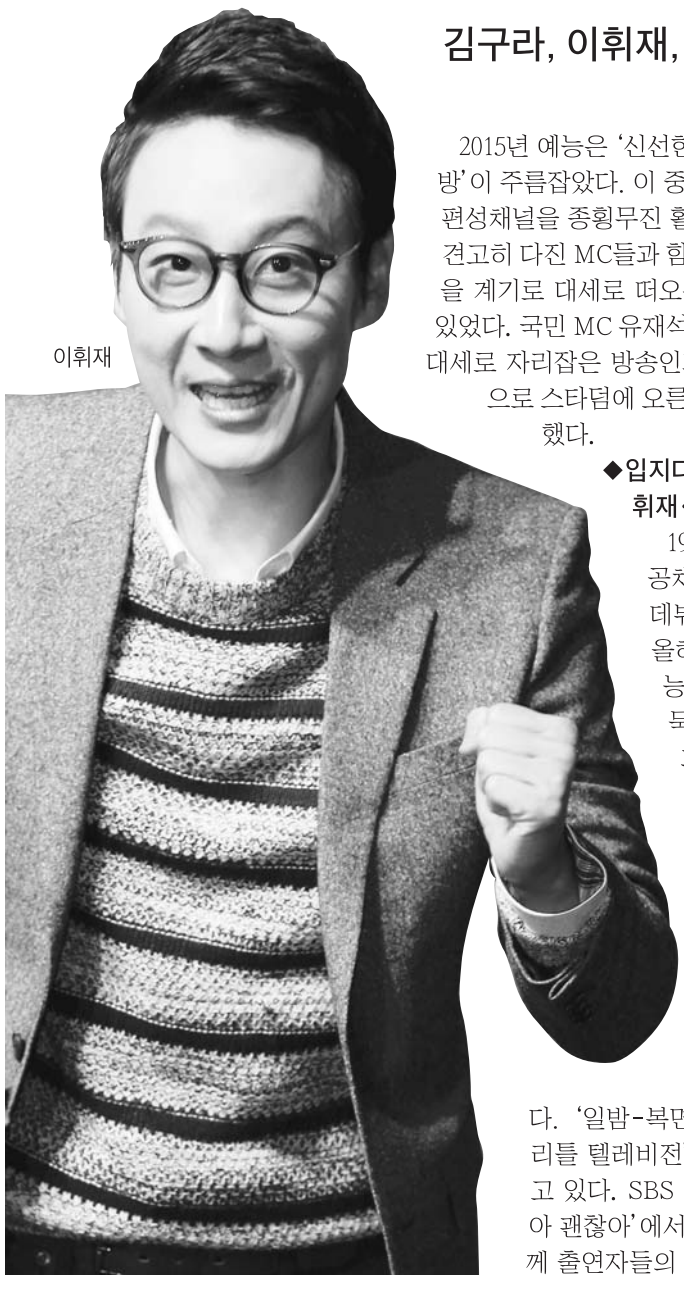
이날 경기에서 잭슨은 4쿼터 막판 결정적인 덩크슛 실패와 종료 직전 SK 김민수와 몸싸움으로 또 한 번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27일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도 21점, 10어시스트, 6리바운드로 펄펄 날았다.

포인트 가드 능력의 척도인 어시스트 부문에서는 함지훈(모비스)이 5.62개로 1위인 가운데 양동근이 5.5개로 2위, 김선형은 5.4개로 3위를 달리고 있다. 시즌 초반 출전 시간이 짧았던 잭슨은 3.83개로 6위다.

이번 시즌 이 세 선수가 펼칠 '포인트 가드 맞대결'이 한겨울 농구 코트를 더욱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장병호 기자

예능천하… 이들덕에 올 한해 국민들 웃었다

김구라, 이휘재, 전현무에 백종원까지… 안방극장 맹활약


이휘재

2015년 예능은 '신선한 콘텐츠'와 '쿡방'이 주름잡았다. 이 중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종횡무진 활약하며 입지를 견고히 다진 MC들과 함께 뜻밖의 출연을 계기로 대세로 떠오른 예능 샛별도 있었다. 국민 MC 유재석의 독주를 막고 대세로 자리잡은 방송인과 강력한 인상으로 스타덤에 오른 예능인을 정리했다.

◆입지다진 김구라·이휘재·전현무

1993년 SBS 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구라는 올해 지상파 3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가 고정 MC로 활약하는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수요일 심야 예능 프로그램 정상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 '일밤-복면가왕'과 '마이 리틀 텔레비전'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에서는 유재석과 함께 출연자들의 갈등 중재를 맡고 있다.

23년간 희극인으로 활동하며 수차례 대상 후보에 올랐던 이휘재는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올해 시청률 면에서 부진했던 KBS 예능 가운데 그나마 웃을 수 있던 프로그램은 단연 '슈퍼맨이 돌아왔다'다. 이휘재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원년 멤버이자 이서언·이서준 쌍둥이 아빠로 꿋꿋히 자리를 지켰다. 생후 4개월 쌍둥이 초보 아빠에서 진짜 아빠로 성장하기까지의 진정성있는 모습은 시청자에게 감동과 재미 두 가지를 선사했다. 그는 26일 열린 '2015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에서 종횡무진 활약한 이도 있다. 전현무는 올 한해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다. KBS2 '해피투게더', MBC '나 혼자 산다', JTBC '히든싱어'등 묵직한 프로그램에서 MC로 활약, 전직 아나운서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짧은 활약, 강력한 인상

뜻밖의 출연을 계기로 빛을 본 방송인도 있다. 가수 겸 작사가 유재환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여름 '2015 무한도전 가요제'에 박명수의 도우미로 잠깐 출연했다가 미친 존재감을 입증했다. 웃으면서 박명수에게 조곤조곤 할 말 다 하는 그의 캐릭터는 시청자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이후 9월 1집 앨범 '커피'를 발매했다. 또 K star '돈워리 뮤직', tvN '방송국의 시간을 팝니다'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지를 쌓고 있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최대 수혜자 백종원과 황재근도 예능계 샛별로 빼놓을 수 없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여타 예능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연예인의 인지도가 통하지 않는다. 박명수나 정준하가 '웃음사망꾼'이 된 것에 비해 요리연구가 백종원, 마술사 이은결, 만화가 이말년 등이 호평받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복면가왕' 가면 제작자로 알려진 디자이너 황재근은 다양한 손재주와 촌철살인 입담을 자랑했다. '홍석천 도플갱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의 독특한 외모와 여성스러운 말투 역시 그를 알리는 데 한몫했다. 현재 JTBC '헌집줄게 새집다오'.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고 있다.

백종원

백종원은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쿡(cook)방' 예능을 안방극장에 정착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올리브 TV '한식대첩3'에서는 요리 연구가의 진면모를 발산하며 '백 박사' 호칭을 얻었으며 tvN '집밥 백선생'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 '꿀팁'을 전수하고 있다. 또 SBS '백종원의 3대천왕'에서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제시하며 '쿡방'을 넘어서 발전된 '먹방'을 선보이고 있다.

여성 방송인 중에서는 박나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tvN '코미디 빅리그'의 인기 코너 '썸&쌈', '중고&나라'를 통해 매주 분장개그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박나래는 30일 '2015 MBC 연기대상'에서 역대급 패러디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6호선 상월곡역, 시민과 '과학 문화' 잇는다

'사이언스 스테이션' 조성 위해 업무협약

국내 첫 지하철 과학관이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사에 생긴다. 지하철 역사가 시민들과 '과학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창의재단,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28일 상월곡역사를 지하철 과학관인 '사이언스 스테이션'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월곡역은 내년이면 설립 50주년을 맞는 한국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인 KIST가 인접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역'으로도 불린다.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상과 첨단 연구성과 관련 콘텐츠를 지하철 역사의 미활용 공간, 벽면, 스크린도어, 계단 등 역사 곳곳을 활용해 전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역사는 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활동관' '소통관(이웃존)' '체험관' 'U-헬스관' 등 크게 4개관으로 나뉜다. 히스토리·커뮤니티·자연사·생활과학·첨단과학·과학상식·전통과학·강연·헬스 등 테마별로 11개 존(zone)으로 꾸며진다.

이곳에서는 과학교사와 연구원들이 직접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역사 주변에 사는 과학자를 소개하고 지역 학생들의 과학경진대회 수상작도 전시한다. 사이언스 스테이션은 '과학의 날'인 내년 4월 21일에 맞춰 개관한다.

2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에서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과 '사이언스 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첫 번째 시설물로'안경없이 볼 수 있는 3D TV'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부 관계자는 "사이언스 스테이션을 통해 홍릉과 화랑로 일대를 과학기술 상징 중심지구로 발전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월곡역에서 가까운 회기로(옛 한국농촌경제연구원~옛 산업연구원)는 '과학문화 창조의 거리'로 조성된다. /신원선 기자

보신각, 새해 맞을 '안전 준비' 완료

'제야의 종' 타종 행사

소방관 배치·폭죽 단속·지하철 새벽 2시까지

올해도 어김없이 31일 자정에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올해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함께 참여할 시민대표를 선정하고 31일 종로 보신각에서 33번의 제야의 종을 울린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의장, 서울시교육감, 서울경찰청장, 종로구청장 5명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받은 2015년 시민대표 11명이 참석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보신각 특설무대를 마련, 타종 전·후 축하공연, 시장 신년인사 등 타종행사 현장을 찾은 시민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아울러 이날 타종 행사를 보고 늦게 귀가하는 시민을 고려해 지하철과 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

보통 새벽1시에 운행을 종료하는 지하철은 이날 새벽 2시까지 총 109회 증회 운행한다. 종로 경유 시내버스 42개 노선 역시 새벽 2시 전·후 출발한다. 종로를 지나는 심야전용 시내버스(N10, N26, N37, N62)도 정상운행한다.

이날 시민 10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유관부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소방펌프차·구급차 25대와 소방관 245명을 현장에 배치하며 안전점검과 행사장 주변 순찰을 실시한다. 이날 폭죽 사용은 자제한다. 폭죽을 사용하다 주변인이 피해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왔기 때문에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폭죽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신원선 기자

[라이프]
이들덕에
국민들
웃었다
19

연재만화

14

새벽을 여는 사람들

⑧ 현대로지스틱스 티몬담당 김 연 국 택배기사

또 하나의 '산타' 설렘 가득한 배송

티몬 슈퍼마트 택배 연령·경력 제한 없어
평균 100곳 방문, 일반 택배기사보다 여유
가족같은 분위기에 동료애도 커져

성탄 전야인 12월 24일 새벽 6시. 아직 어두운 시간이지만 김연국 씨(48)는 옷깃을 여미며 집을 나선다. 그를 기다리는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김 씨는 현대로지스틱스 소속 티몬 '슈퍼마트' 상품 전담 택배기사다. 7시쯤 회사에 도착한 그는 서둘러 자신이 배달할 물건들을 분류하기 시작한다. 뒤늦게 도착한 동료 기사들이 김 씨에게 인사를 건낸다. 사랑이 담긴 농담도 주고받는다. 이 일을 시작한지 4개월 남짓 됐지만 그는 동생뻘 되는 동료과 허물없이 지낸다. 마치 오랜 세월 함께 한 것처럼….

"고객들이 크리스마스 전날 가장 기다리는 것은 산타가 아닌 택배죠"라며 웃으면서 너스레를 떠는 그의 담당 구역은 송파구와 잠실 일대다. 티몬의 생필품 카테고리 슈퍼마트를 담당하기 때문에 같은 집을 찾아가는 일이 흔하다.

"저 같이 같은 지역을 계속 도는 기사들은 매일 같은 고객을 봐요. 몇 몇 고객 분과는 친해져서 음료도 넌지시 쥐어 줍니다." 배달을 시작하는 김 씨의 눈에는 피곤함보다 설렘이 가득했다.

컴퓨터 수리점을 10년 넘게 해온 김 씨는 갑작스런 경기 악화로 가게를 정리하게 됐다. 가족들을 두고 막막하기만 김 씨가 만난 것은 티몬 슈퍼마트 택배기사 모집 공고였다. 연령 제한, 경력 제한 등이 없었기에 김 씨에게는 희망과도 같았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얻는 다는 것이 보통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험 많은 선배들의 교육을 거친 그는 택배업무와 함께 신입기사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다. 자신이 신입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김 씨는 즐거워 보였다. 4개월 전에 느꼈던 절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저희 현대택배는 분위기가 좋아요. 이쪽이 티몬 담당이라 더욱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가족같이 친하게 지냅니다. 새로 입사한 후배를 동승시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더욱 친해지죠."

처음 도착한 곳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집이다. 벨을 누르자 튀어나오는 것은 엄마가 아닌 아이다.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는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매년 이 맘 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선물이 온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아이에게 김 씨는 산타할아버지가 같은 존재다.

김 씨는 아이에게 귀엽다는 말과 함께 상자를 넘겨줬다. 평소 방문이 잦은 집인지 아이의 엄마는 김 씨에게 인사를 한다. 내년부터는 산타복장을 입어야겠다는 농담과 함께 다음 집으로 출발했다.

"오늘같은 날 아이들에게 택배기사는 산타할아버지에요. 택배아저씨는 항상 선물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는 거죠. 저런 모습들을 보면 제 일에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요. 누군가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론 내가 아닌 상품이지만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뿌듯해 집니다.(웃음)"

하루 평균 100곳이 방문하면 김 씨의 일과는 마무리된다. 일반 택배기사가 150~200곳을 다녀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유있는 편이다. 오후 4시께 김 씨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회사로 돌아간다. 일과를 마친 기사들이 김 씨의 귀환을 반긴다. 서로 웃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다보면 어느새 겨울 해가지고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간다.

항상 이런 식으로 담소를 나누고 헤어지냐는 질문에 김 씨는 "어차피 퇴근 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로 들어와야 해요.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기 때문에 다들 집에 들어가기 아쉬운가봐요. 동료애가 커지는 거죠"라고 답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